HANURI TOUR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우수대리점
한우리 여행사
전 세계 항공권 최저가 도매개별 맞춤 투어 전문
213.388.4141 1001 S.Vermont Ave. #209,
1-855-388-4141 Los Angeles, CA 90006

기독일보

삼성통운 SAMSUNG SHIPPING
귀국이사·타주이사·시내이사·차량운송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T: (877)580-2424

Tel. 213-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성령께서 이끄시는 화해의 신문 WWW.CHDAILY.COM THURSDAY, February 14, 2019 Vol. 659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복음통일 주실 것"



'복음통일 전문 세미나 및 연합기도회'가 12일부터 15일까지 총 나흘간의 일정으로 사랑의빛선교교회에서 시작됐다.

북한 복음화의 꿈을 꾸는 '복음통일 전문 세미나 및 연합기도회'가 12일(화)부터 15일(금)까지 총 나흘간의 일정으로 패서디나(Pasadena)에 위치한 사랑의빛선교교회(윤대혁 목사)에서 시작됐다.

세미나는 12일 오후 2시에 이학준 교수와 윤학렬 영화감독의 강연으로 시작한 가운데, 이날 오후 7시에는 임현수 목사의 저녁 집회가 진행됐다. 임현수 목사는 캐나다 큰빛교회의 2대 원로목사로 북한에서 국가전복혐의의 이유로 종신노동교화형에 수감되었다가 지난 2017년 8월에 2년 6개월 9일의 수감생활에서 풀려났다.

임현수 목사는 '꿈꾸는 것 같도다'(시편 126편 1-6절)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 가운데, 첫날 집회에서 주로 북한 억류생활에서 있었던 고난의 이야기를 풀어내며 참석자들에게 회개할 것을 촉구했다.

임 목사는 "북한에서 풀려 나온 지금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려고 성구 암송을 하며 몸부림을 치고 있다"면서 "교회에서 30년 동안 목회를 하며 60명에서 3000명으로 부흥하고 선교사 수백 여명을 파송하고 우쭐했었는데 감옥에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다 회개하게 하셨다. 우리의 탐욕, 음란, 거짓을 다 회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목사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 나라에 곧 통일이 올 것이다. 문제는 우리가 준비되지 못해서 아직 독일처럼 통일이 선물로 주어지지 않은 것"이라며 "우리나라는 전세계에 디아스포라들이 가장 많이 퍼져있다. 중국에 400만, 일본에 100만, 미국에 200만 등 전세계에 800여명의 디아스포라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파하고 있다. 1970-80년대 한국은 기독교인들이 산마다 찾아 다니며 산기도를 하고, 철야기도, 새벽기도를 해서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2면에 이어서 계속]

2·8 동경 독립운동 100주년 기념 조찬 기도회


남가주목사회가 2.8 동경 독립운동 100주년을 맞아 조찬 기도회를 가졌다.

3.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의 기원인 2.8 독립선언 100주년 기념 조찬 기도회가 8일 금요일 오전 7시 30분에 남가주한인목사회 주관으로 뉴서울 호텔에서 있었다.

박세헌 부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기도회에서 1부 합심기도는 김영구 목사가 인도했다. 조국과 동포를 위해서 김근수 목사(OC목사회 회장)가, 오늘의 기도회와 말씀을 위해서는 김영구 목사가, 조국과 해외 한인교회를 위해서 강태광 목사가 기도했다. 이어서 박세헌 부회장이 마 9:35을 봉독했고 곽건섭 목사(예은교회 담임)가 말씀을 전했다.

곽 목사는 "100년전 한국교회는 예수님의 3대사역인 선포하고, 가르치시고, 고치시는 사역을 감당했다"면서 "기독교가 짧은 35년 역사임에도 교회가 세워지는 곳마다 성경중심의 말씀선포와 함께 수 많은 학교를 세워 한글보급과 문명퇴치에 앞장서고, 병원을 세워 병든자를 고쳐 민족의 장래에 앞장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족의 미래를 교회가 돌아보며 목회자 한 사람이 나부터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회개운동을 벌이자"고 강조했다.

2부 합심기도는 샘 신 목사(직전 회장)가 인도했다. 조국의 안보아 군대를 위해서는 최학량 목사, 남가주 목회자들과 사역자를 위해서 김향로 장로(교협 이사장)가, 3.1절 100주년 기념 예배를 위해서는 샘 신 목사가 기도했다. 이어 김관진 목사의 인사 및 기념사가 있고 이어서 삼일 정신의 계승을 위해 권영신 장로가 한인 차세대와 민족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했다. 이어 헌금시간을 갖고 조미나 목사가 헌금기도를 했다. 박세헌 목사의 2.8독립선언문 낭독후 다 같이 만세삼창을 했다. 총무인 강태광 목사의 광고후 교협회장인 한기형 목사의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무리 했다.

한편, 남가주 목사회에서는 3.1운동 100주년 기념연합예배를 3월 3일 오후 4시에 남가주새누리교회(박성근 목사) 구성전에서 드릴 예정이며 4일 독립운동 유적지 답사 및 목회자 영성 수련회(강사 피종진 목사)를 계획하고 있다.

Spectrum BUSINESS | TIME WARNER CABLE
교회, 사업체에서 한국과 같은 초고속 인터넷 속도를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스팩트럼에서 획기적인 속도와 가격으로 고객 여러분을 모십니다.
Sale
인터넷 100Mb + 미국, 캐나다 무제한 전화
$74.98 a month
NO Contract!
인터넷 200Mb/300Mb 한달도 가능합니다.
타 회사 위약금 발생시 최대 $500까지 보상합니다.
Sang Park (한인 매니저) T.(562)916-5191 Sang.park@charter.com

그린카피어
Green M. Wild IMAGE SYSTEMS
Office and Industry Technology Solutions
Lease/Rent/Sale/Repair/Toner/Maintenance
칼라복사/칼라프린트/칼라스캔/팩스/네트워킹
교회및 자선,비영리단체는 특별한 가격
greenmwild@gmail.com
TEL: 213 705 7778
bizhub KONICA MINOLTA

FATHER'S TABLE CHURCH
내 집은 만민이 금식 기도하는 집이니라
▪주일예배 : 오전 6:00 /11:00
▪새벽예배 : 월~토 오전 5:30
▪수요예배 : 오후 5:30
▪금요예배 : 오후 5:30
▪찬양 & 부흥예배 : 월/화/목/토 오후 5:30
3210 W. Olympic Blvd., CA, LA 90006
TEL : (213)364-7289, (213)605-1983

제1회 투산영락교회
목회자 세미나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제1회 투산 영락교회 목회자 세미나]
목사님과 사모님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강 사
장충렬 목사
(투산영락교회 담임)
이민교회를 섬기시느라 수고하시는 목사님과 사모님들, 특히 교회 성장과 부흥을 위해 몸부림 쳤음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기 보다는 변하지 않는 현실로 인해 답답함을 느끼시는 분들, 그 답답함으로 인해 하루에도 몇 번씩 목회를 계속 해나가야 하나 고민하며 기도하는 분들, 투산 영락교회는 이러한 분들을 모시고 함께 이 문제를 고민하며 다시금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용기를 내서 교회를 세워보고 싶은 분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교회의 돌파구를 찾아 다시 도전해 보기를 원하시는 목사님들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시는 분들은 속히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미나 모집 정보
일정 : 2019년 4월 8일(월)~10일(수) 2박 3일
장소 : 투산영락교회
대상 : 미국 내 이민목회 중인 목회자 부부
모집인원 : 20가정(선착순)
참가비 : 무료
(세미나를 위한 모든 비용은 투산영락교회에서 부담합니다.)
*항공료는 각자 부담
접수기간 : 3월 24일(주일)까지
*세미나 준비를 위해 2주 전까지 꼭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장충렬 목사 T.(520)390-4447 jcyuel@hanmail.net
KPCA 해외한인장로회 투산영락교회 Tucson Young Nak Presbyterian Church



치노벨리 아름다운교회가 주명식 목사를 초청해 분리개척 기념 부흥회를 열었다.

"저 글씨가 뭔데 나에게 와서 이렇게 비취냐"

치노밸리아름다운교회 부흥회, 주명식 목사 초청

치노밸리 아름다운교회(조준민 목사)는 8일부터 10일(주일)까지 3일간 주명식 목사(탬파베이 열린교회)를 초청해 부흥회를 개최했다.

세번째 집회가 있던 9일 오후 7시에, 허영 집사의 대표기도 후 김형기 목사, 김경애 사모의 특송에 이어 주 목사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본문으로 말씀을 전했다.

그는 "어머니를 보면서 새로운 피조물 그리스도 안에서 새 것이 된다는 이 말씀이 마음에 와닿았다. 이 말씀에서 내 마음에 꽂히는 단어가 있었다. 그것은 '누구든지'였다. 예외가 없다. 누구든지 새로워질 수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하다"고 서두를 열었다.

그는 외작두를 탔던 강신무였던 그의 어머니가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나 우상숭배를 하던 때의 영적인 잔재가 완전히 청산하기까지 6년 정도 시간이 걸렸다고 말했다.

"무업을 하시면서 얼마나 많은 일을 경험했겠는가. 몸이 아프기도 하고, 감정기복이 심하기도 하고, 왈칵 눈물을 쏟기도 하고. 제가 어머니를 잘 돌봐드렸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금요기도회에 가셨는데, 목사님께서 칠판에 '임마누엘'이라는 글씨를 쓰시면서 설교를 하셨다. '임마누엘'이라는 글씨에서 섬광이 나와 어머니 가슴에 비췄다고 하셨다. 어머니께서, 제게 '저 글씨가 뭔데 나에게 와서 이렇게 비취냐'고 물으셨다. 그 빛은 어머니만 보셨고 아무도 보지 못했다. 그렇게 역사하신 것 같다. 저희 어머니는 딸만 여섯인 가족의 맏딸이다 보니, 초등학교를 2학년까지밖에 다니지 못하셔서 한글을 못떼셨다. 글씨를 모르니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모습으로 은혜를 베풀고, 어머니를 위로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데 그와 같은 기적을 보여주신 것이다. 어머니가 '임마누엘이 뭐냐'고 물으셨다. 제가 대답했다, '하나님이 엄마와 함께 하신다는 것인데 하나님이 엄마를 사랑한대, 하나님이 엄마를 지켜주신대.' 어머니가 얼굴이 환해지셨다. 영적으로 시달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생각하시며 감사해 하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이 우리의 큰 위로이다. 우리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이 있지만, 부모로부터 그렇게 많은 박해를 받고 집에서 쫓겨나고 온갖 욕을 다 들어도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그것 하나면 충분하더라. 다 감당이 되더라. 고난과 그 상황이 힘들지가 않았다. 어머니도 그것을 똑같이 경험하셨다."

또, 어머니가 예수를 영접한 그 다음날부터 새벽 예배를 나갔다고 말했다. "대부분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면 주일 예배 먼저 나가기 시작한다. 그런데 저희 부모님은 새벽기도부터 다니기 시작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할 때 어머니가 너무 열심히 하지 말고 적당히 하라고 하셨다. 그런데 어머니가 예수를 믿더니 제가 한 것을 그대로 따라해야 하는 것으로 아셨다. 저를 핍박했지만, 제가 어떻게 교회를 다니고 있었는지 보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제가 하던 그대로 따라 하셨다.

주 목사는 자신을 핍박했던 어머니가 든든한 후원자로 변화됐다고 말했다."저희 집의 주된 수입원은 어머니셨는데 무업을 그만두고 저와 6개월 동안 전도를 다니시니 집에 수입이 없었다. '네가 몇년 일한 다음에 신학을 해도 되지 않겠냐'고 아버지가 물으셨다. 저는 신대원에 가려고 어머니를 전도한 것인데 어머니가 전도된 후 집안 형편이 힘들었다. 그런데 오히려 어머니가 집을 팔자고 하셨다."

"무속인 전도의 한계를 느끼고 미국에 가서 신학을 공부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이 이야기를 부모님께 하자 아버지가 반대하셨다. 그런데 어머니가 또 나섰다. '우리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무슨 아들이 지켜주냐'고 하셨다."

부모님을 잘 섬겨드리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을 전하면서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기쁨'이 이 아쉬움을 다 덮는다고 했다. "부모님을 좀 더 섬기고 돌보지 못했다는 미안한 마음이 늘 있다. 그런데 어머니가,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 가족이 마음이 하나 되어서 너무 좋으시다'고 하신다." 그는 가족 모두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며, 자신이 한 것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드린 것 밖에 없다고 간증을 마무리했다.


임현수 목사

[1면에 이어서] 지켜주셨다. 그런데 지금은 영혼 구령의 열정을 잃어버리고 비전이 식어지는 등 한국교회의 위기를 보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사람이 잘 될 때는 타락하기 너무 쉽고, 고난은 왠만한 사람들이 다 견뎌낸다. 바울은 고난 당하는 것이 복음의 진보라고 말한다. 예수를 믿으면서 고난 받는다고 낙심하지 말라. 고난을 견디면 소망이 이뤄지게 되는 것을 깨달으면 우리에게 복이 있을 것"이라며 "사울도 처음에는 겸손하게 시작했지만 나중에 기념비를 세우고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다. 다윗은 고난을 겪었지만 간음죄를 저지르는 실수를 범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의지했다"고 말했다.

또 임 목사는 "조선시대의 왕들을 보면 평균 45세를 살았는데, 죽은 원인을 보면 임질과 매독 등 성적인 질병으로 죽었다. 재벌도 보면 돈을 많이 벌었지만, 집안들을 들여다보면 싸움을 하고 있고, 다는 아니지만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에 독방에서 2년 6개월 동안 억류되면서 고독과 외로움, 협박과 싸우면서 인내를 많이 배웠고, 처음에 추운 겨울에 얼어붙은 땅을 파면서 많은 고생을 했다"라며 "악한 북한 간수들에게 시달리면서 3달 동안 설사를 하고 발가락에 동상이 걸리고 힘들었던 일들은 다 간증할 수 없다. 은혜가 된 것은 손양원 목사님이 작사한 찬송가를 부르면서 '솔로몬의 부귀보다 욥의 고난이 더 귀하고 솔로몬의 지혜보다 욥의 인내가 더 귀하다'란 가사가 마음에 많이 와 닿았다"고 했다.임 목사는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죄다 고난의 연속이고 감옥출신이다. 나중에 돌아보니 저에게는 감옥 생활이 축복이었다"라며 "우리 주변에 독거 노인들, 과부들을 보게 되는데 많이 생각이 나고 앞으로 기회가 될 때 돕고 싶다. 북한에서 나와서 또 감사한 것은 배부름에 대한 것이다. 북한 사람들은 먹지 못해서 죽어가는데 한국은 매년 버리는 음식 쓰레기가 22조가 든다"고 했다. 이어 그는 "북한에서 화장실 청소를 시키지 않아 이상했는데, 한번은 한 간부가 시켜 화장실 청소를 하는데 쓰레기통을 보니 화장지가 없었다. 화장지를 손바닥만한 누런 신문지가 대체하고 있었다. 북한 사람들은 먹는 것이 부실하니 변을 보는데도 큰 문제가 없는 것이다. 고난의 행군 때는 먹은 것이 없으니 염소 똥 정도의 변을 보니 화장실 보는데 큰 문제가 없었다고 한다. 화장지가 거의 필요하지 않는다면 믿어지겠는가. 그런 모습을 직접 목격했다"고 했다.

토마스 맹 기자

치노밸리 아름다운 교회는 로렌하이츠에 위치한 아름다운 교회(고승희 목사) 성도들의 기도와 헌신으로 개척된 지교회로, 2월 10일 주일 오후 2시에 분리개척 예배를 드림으로 치노 지역과 LA동부지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확장하기 위한 새 출발을 알렸다.

부흥성회에 강사로 선 주명식 목사(템파베이 열린교회)는 총신대에서 목회학, 신학석사를 받고, 리버티 신학교와 리폼드신락교 올랜도 캠퍼스에서 공부했다. 미국 장로교(PCA) 소속 교회 개척자로 플로리다 탬파에 파송되어 탬파베이 열린교회를 개척해 섬기고 있으며 2017년 '무당 엄마 목사 아들(홍성사)'를 출간한 바 있다. 무속인이던 어머니를 전도해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우는 과정을 겪으며 우상숭배의 실체를 알리고 무속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사명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으며, 무속신앙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성경에 대한 바른 이해와 믿음에 있음을 널리 알리고 있다.

주디 한 기자

Christian Healthcare Ministries
오바마케어 승인 프로그램
크리스천 헬스케어
* 연중 아무때나 가입이 가능.
* 골드 프로그램은 본인부담금($500)을 지불하지 않음
ACCREDITED CHARITY bbb.org
미주최대 의료협동조합 www.chman.org 714.738.1234

www.saseducation.weebly.com
실무 11년의 노하우
SAS 인가컨설팅,Inc
•직업전문대학인가(ACCSC)
•신학교 인가(TRACS, ATS)
•BPPE 신규 및 재승인
•어학원/온라인 프로그램
대표 Paul Kim, Ph. D
summitus37@gmail.com
Tel : (213)531-7215, (909)993-3028
16992 Rudeen Lane, Fontana, CA 92336

미주 크리스챤 문학 마을
행복한 글쓰기 교실
1. 행복한 수필 쓰기
인생의 추억과 교훈을 근사하게 남기세요.
2. 행복한 시 쓰기
가슴에 담긴 노래를 시로 풀어 놓으세요.
▪일시 : 2월 23일(토) 오전 10:00 (사전 등록 받습니다)
▪장소 : 크리스챤 문학 마을
621 S. Virgil Ave. #260, LA, CA 90005
*작가가 되는 길을 안내해 드립니다.
*실비로 책 출판을 안내해 드립니다.
*지속적인 작품 발표를 도와 드립니다.
강태광(목사, 시인, 시조인)
미주 크리스챤 문학 마을
회장 : 강태광 목사 (323)578-7933
사무총장 : 김헬렌 (818)923-8004
행복한 수필·시 쓰기

“선교적 교회로 하나님의 기쁨 되는 교회 될 것”

기쁜우리교회 창립 2주년 기념예배



글렌데일에 있는 기쁜우리교회가 창립 2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고 ‘선교적 비전’이란 교회의 사명을 재확인했다.

기쁜우리교회(김경진 목사)가 창립 2주년 기념예배를 드리고 선교적 교회의 비전을 확인했다.

10일 주일 본당에서 드려진 11시 3부 예배에서 원동석 장로는 대표기도에서 “창립된 기쁜우리교회가 2년을 맞아 하나님을 향한 처음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 땅에 세워가는 참된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해 달라”고 기도했다. 행 11장 19-26절을 본문으로 선교적 교회의 비전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 김경진 목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탄생하게 된 기쁜우리교회는 지체들의 수고와 섬김 헌신을 통해서 여기까지 올수 있었다. 하나님의 은혜와 지체들의 사랑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김 목사는“기쁜우리교회가 정말 필요한 교회인가? 우리교회의 진정한 목적을 살펴보기 원한다”면서 “교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그 구원의 완성을 향해 견인해 가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구별된 장소와 시간이 예배“라고 말했다.

그는 “교회와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의 사명자로 키워져 세상에 파송하는 선교가 되어야 한다.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나라를 선포하는 사명자가 되어야 한다” 강조했다.

김 목사는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교회에 귀한 지도자였지만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안디옥 교회에 파송하는 것을 보게 된다” 면서 “우리에게 필요할지라도 기쁨으로 하나님나라 위해 드리는 선교적 교회가 되자”고 말했다.

그러면서 “ 금년에는 50명이상 나이에 관계없이 단기선교팀을 파송하려고 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기쁜우리교회가 되자”고 말했다.

한편, 기쁜우리교회는 2월부터 매주일 친교실에서 커뮤니티 서비스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제공하는 서비스는 버스쿠폰, City Ride, Tap 카드, 편지번역, 전화통역 등 각종 정보안내 등이다.

커뮤니티 서비스는 장진기 집사, 양성심 집사, Harry Kim 목사가 수고한다. Harry Kim 목사는 중학교 때 도미, 미국교단에서 목회했고 현재 한인타운에서 통역, 번역, 이민 대행 업무를 하며 현재 기쁜우리교회에 출석하고 있다.



대한민국국가조찬기도회와 회장 두상달 장로 동포 간담회가 개최됐다.

두상달 장로 동포 간담회 열려

“차세대를 적극 육성할 것”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 남가주지회 주관으로 2월 9일 오후 6시 30분에 가든 스윗 호텔에서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의 회장 두상달 장로 동포 간담회가 개최됐다.

남가주지회 사무총장 이태형의 사회로 488장을 찬송하므로 기도회를 시작했다. 손수웅 회장의 환영사에 이어 조찬기도회를 소개하는 동영상을 시청하고 김완중 대사와 로라전 한인회 회장의 축사가 있었다.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 사무총장인 정균양 목사가 두상달 회장을 소개하고 두상달 회장은 격려사로 응답했다.

두상달 대한민국국가조찬기도회 회장은 엘에이 동포간담회에서 “이번에 워싱턴에서 열린 국가조찬기도회에 참석해보니 대통령과 많은 국회의원들이 말씀과 신앙의 기초위에 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국가조찬기도회의 역사가 50년이 지났다. 향후 10년 후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면서 “국가조찬기도회 조직을 전국 시단위로 조직을 확대하고, 차세대를 적극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하기언 부회장의 나라와 민족 국가 지도자를 위해서, 김용식 부회장의 국민화합과 경제번영을 위해서, 유화진 위원장의 청소년과 미래과제에 대해서 기도했다. 손수웅 회장이 기념패를 전달하고 한기형 목사가 권면했다. 그리고 최순길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한편, 2019년 대한민국국각조찬기도회는 6월 11일 코엑스에서 열리게 된다.

설교의 새로운 흐름, ‘3대지 설교’에서 ‘원포인트’로

모든 목회자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효과적으로 전달할까 일주일내 고민한다. 성경적이면서 성도들에게 잘 들리게 하는 설교가 가능할까? 귀에는 잘 들리지만 비성경적으로 흘러가는 경우나, 너무 본문 중심으로 가서 성도들이 딱딱하고 재미 없어하는 경우의 설교로 치우친다. 성경적이면서 효과적으로 전달되는 두 마리의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는 없을까?

‘원포인트 드라마틱한 강해설교’의 독창적인 방법을 개발해 설교학의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신성욱 교수(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설교학)가 LA를 찾았다.

신성욱 교수는 신구약 성경을 전공하고 설교학도 공부한, 두 가지 학문을 겸비한 보기 드문 전문가이다. 총신대 신대원을 졸업한 후, 미국에서 구약학(Trinity Evangelical Divinity School)과 신약학(Calvin Theological Seminary)으로 석사학위(Th.M)를, 남아공에서 수사학적 설교(Univeristy of Pretoria)로 박사학위(Ph.D)를 받았다.

지난 4일 LA 마가교회에서 열린 ‘원 포인트의 드라마틱한 강해설교 세미나’에 강사로 나선 신 교수는 강의 후 인터뷰에서 “세계교회의 설교의 흐름이 1970년을 전후로 3대지 설교(3~4개의 대지points를 통해 본문이 담고 있는 명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연역적으로 풀어 설명하는 형태)에서 원 포인트로 바뀌었다. 그래서 이제 목회자나 신학생들도 원포인트 설교의 중요성을 알고 있지만, 문제는 한 주제로 30분짜리 설교 한 편을 만들 방법을 모른다는 점이다. 때문에 15년 전부터 원포인트로 어떻게 효과적으로 설교할 것인지에 관한 프레임을 연구하고 개발했다”고 말했다.

그는 “원포인트 강해설교는 성경적이고 효과적이며, 성경 본문의 핵심인 원포인트로 흘러가는 한 편의 드라마와 같은 설교”라고 말했다. 예를 들어, “창 22장을 본문으로 설교할 때 대부분이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 이런 단편적인 제목으로 설교를 많이 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방정식’이란 제목으로 설교를 했더니, 성도들의 반응이 한 주 전부터 설교의 대한 기대와 궁금증을 갖고 듣게 되더라”면서 ”아무리 효과적인 설교를 해도 본문을 제외하고 할 수는 없다. 본문에 충실하면서 어떻게 하면 귀에 들리는 설교를 할 것인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성경이란 밭 속에는 산삼도 들어있고 도라지도 들어있다. 도라지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가장 핵심이 되는 산삼 한 뿌리는 어느 본문이든 다 들어있다. 그럼에도 설교자들이 자꾸 삼대지 설교를 하다 보니 본문에서 덜 중요한 도라지 세 뿌리만 찾게 되어 정작 중요한 원 포인트의 산삼 한 뿌리는 놓치게 되는 경우가 많음을 보게 된다”면서 ”본문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한 가지의 핵심 포인트를 성도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효과적인 설교, 들리는 설교를 하면서도 본문의 핵심적인 메시지를 끌어낼 수 있는 ‘원포인트의 프레임’을 개발하고 있다”면서 ”미주지역 목회자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그는 “목회자에게 가장 힘든 것은 설교를 준비하는 것이다. 2019년 미주지역 목회자들의 강단이 더욱 풍성해져서 양들에게 영양만점인 풍성한 꼴을 먹이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 일을 위해서 열심히 미주지역 목회자들을 돕겠다”고 덧붙였다.

오는 8월 3일간의 세미나와 함께 원하는 이들을 위한 박사과정의 프로그램이 실시될 예정이다. 설교의 변화와 함께 학위도 수여받는 이 세미나와 박사학위 과정에 목회자 여러분 모두가 적극 동참하기를 강력히 추천한다”고 말했다.



신성욱 교수(아세아연합신대)





〈선교 부흥을 회복하라 - 99〉

아프가니스탄에 불어 온 훈풍 소식(2)



이 상 훈 목사
주비젼교회 담임

9일간에 걸쳐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 힘겨웠던 사역을 이겨내고 청년 단기팀이 승리의 소식을 보내왔다. 그 지역에는 필자가 섬기는 선교단체에서 파송한 장기 선교사팀이 사역하는 고아원이 있는데 아이들이 감기에 걸리고, 또 홍역을 앓는 일이 발생해 중보기도팀에게 긴급 기도요청을 해왔다. 중보기도자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SNS를 통해 전해져 오는 기도제목대로 간절히 연합해 기도했다.

단기 선교에 참여한 한 청년의 간증 중에 "겨울을 좋아했고 눈이 오는 것을 좋아 했던 철없던 제가 바뀌었습니다. 이곳 아국에는 눈이 오면 추위에 떠는 이웃이 너무 많습니다. 전기가 끊어져 한 주 동안 꽁꽁 언 마을 속에서 그들의 고통을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가슴 아픈지 모릅니다. 이젠 추워지고 눈이 오면, 전기가 끊어지지 않도록 그들이 고난당하지 않도록 기도합니다."라고 쓴 것을 보며 같은 마음으로 중보기도팀들이 함께 기도의 향을 태운다.

지금 그곳으로 MIT 단기팀이 들어가서 사역한다. 메디칼 선교팀이다. 소아과, 부인과, 치과, 한의과등 한 의사당 간호사를 포함 십수명의 조원들이 팀을 이루어 진료에 힘을 합친다. 일과시간에는 진료를 하고 진료가 끝난 늦은 오후에 조를 나누어 왕진 가방을 들고 거동을 하지 못하는 환자의 가정을 방문한다. 현지 주민들과 대화하고, 상담하고, 한쪽에는 아이들과 놀고 그렇게 그들과 친구가 되어 간다. 때가 이르면 복음을 전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 다시 오실 메시아가 우리 모두를 구원할 것을 선포한다.

사랑을 받은 많은 현지인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선교 부흥이 저 중동의 땅에서 일어나고 있다. 수많은 선교단체들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는 지역도 있다. 그러나 많은 지역은 아직 선교사의 발이 닿지 않았다. 그런 곳을 찾아 최전방 전문인 개척선교를 꿈꾸며 나아간다.

우리 선교단체 안에는 이슬람권 지역을 중심으로 약 50여개 나라 종족을 위해 기도하고 선교동원에 힘쓰는 그 종족들을 입양한 지체들의 '종족모임'이 있다. 그 종족모임에는 종족모임을 개별적으로 이끄는 족장이 세워져 있고 족장은 현지 장기선교사님들과 네트워크가 되어있다. 매일 업데이트된 현지 기도제목들이 각 족장들에게 전달되면 족장들은 종족모임 팀원들의 SNS 그룹방에 기도제목과 참고할 소식들을 전달한다. 그때부터 각 종족모임별로 뜨거운 중보기도가 시작된다.

종족모임의 중보기도자들이 미국은 물론 한국 등 세계 여러 지역에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24시간 계속해 그 종족을 위한 기도가 올라온다. 그 기도를 같이 나누는 시간이 얼마나 귀하고 기쁜지 모른다. 그렇게 열방을 향한 기도의 불씨들이 세계 각지에서 피워지고 있다.

지난주 필자의 큰딸이 학생선교사(SM)로 1년 2개월간 이집트 사역을 마치고 복귀했다. 주일예배 때 사역 간증을 통해 필자의 교회는 성령의 기름부으심을 받는 큰 은혜를 체험했다.

1세들의 예배는 물론 다민족 EM 예배 때까지 이어진 놀라운 은혜였다. 우리 EM에서는 필리핀 청년이 학생선교사로 헌신하기로 결단했다. 그의 선교지는 터키이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1년간 또 한 명의 청년교우를 파송할 물심양면의 준비를 또 시작한다.

기독일보

편집고문 : 박희민, 장재효, 박기호, 방지각, 김중언, 고승희, 민종기, 정우성, 김혜성
발 행 인 : 이인규 **이 사 장** : 임덕순 **고문변호사** : 정찬용
지 사 : 로스앤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시카고, 애틀랜타, 시애틀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E-mail** : chdailyla@gmail.com
Pay to the Order of : Christianity Daily
주소 :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 섬기고 나누는 월드쉐어 USA 강태광 목사

예수님의 미소!



강 태 광 목사
월드쉐어 USA

만약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신다면 어떤 표정을 지으실까요? LA거리를 걸어가신다면 어떤 표정으로 걸어가실까요? 예수님께서 어느 교회 강대상에서 말씀을 전하신다면 어떤 표정을 지으실까요? 나사렛과 갈릴리 마을을 걸어 다니셨던 예수님은 어떤 표정이었을까요? 디베랴 바닷가에서 말씀을 전하셨던 예수님은 어떤 표정을 지었을까요?

예수님의 얼굴을 그렸던 작품들 중에 미소를 그린 그림을 보지 못했습니다. 성화 속에 나타난 예수님의 얼굴은 늘 근엄하고 진지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성화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은 아무런 감정이 없으신 것 같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필자는 어린 시절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상상하면 너무 근엄하고 무서운 예수님이셨습니다.

완전한 사람이셨던 예수님은 우리들과 같은 희노애락의 정서를 갖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사람들을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성전에서 탐욕스런 장사판을 벌이는 사람들을 보신 예수님께서는 분노하셨습니다. 진리를 찾아 헤매다가 빈들에서 저녁을 맞으며 피로와 배고픔에 지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버니인 나사로의 무덤에 가셨을 때에는 예수님께서 슬퍼하시며 우시기도 하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께서는 감성이 풍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언제 기뻐하셨을까요? 성경은 예수님의 기쁨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기쁨이 표현된 대표적인 경우가 누가복음 10장 21절입니다. 70인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분부대로 전도를 마치고 돌아와 기쁨의 전도 보고를 합니다. 제자들은 전도현장에서 임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세를 체험하고 기뻐합니다. 기뻐하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것을 축하하고 축복하면서 귀신들이 항복하고 귀신들이 쫓겨나가는 것을 보고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말할 수 없는 기쁨을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는 70제자들이 전도에 승리하고, 그들의 이름에 하늘에 기록된 것을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기도를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22절까지 이어지지만 예수님의 기쁨은 21절에서 설명됩니다. "그 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재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전도 보고를 받으신 예수님은 기뻐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기쁨은 그저 그런 기쁨이 아닙니다. 그 기쁨은 충만한 기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기뻐하셨습니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온전한 기쁨을 누린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기쁨의 충만을 누리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 순간만 기뻐하셨을까요? 예수님은 기쁨에 충만한 삶을 사셨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쁨을 소유하셨던 것은 당대에 잘 알려진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져야 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에 제자들에게 권면과 축복의 말씀을 전하시면서 기쁨을 누리기를 축복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서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기쁨을 누리고 계심을 전제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기쁨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기쁨이 충만하신 삶을 사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행복하게 사셨던 것입니다. 기독교 행복학자인 죤 파이퍼 (John Piper) 목사는 예수님은 역사상 가장 행복하신 분이었다고 주장합니다. 필자도 동의합니다. 예수님은 늘 행복한 미소를 머금고 사셨을 것입니다.

만일 필자가 화가라면 환하게 웃으시는 예수님을 그리겠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담소를 나누시며 파안대소하시는 예수님을 그리겠습니다. 어린 아이를 품에 안으시고 다정히 웃으시는 예수님의 모습도 담고 싶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거리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밝은 미소로 인사를 건네셨을 것입니다.

필자는 자주 예수님의 미소를 상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보시면서 미소를 지으시리라 믿습니다. 어려운 현실 속에서 믿음대로 살려고 몸부림치시는 장로님을 보시며 환한 미소를 지으실 것 같습니다. 피곤을 무릅쓰고 새벽기도 나오셔서 꾸벅꾸벅 졸고 계시는 권사님을 보시며 인자한 미소를 지으실 것 같습니다. 열심히 준비한 찬양을 망쳐 속상해 하는 지휘자와 반주자 등을 토닥거리며 미소를 지으실 것입니다. 준비한 원고대로 설교하지 못해서 속상해하는 목사님에게 고개를 끄떡이며 미소 지으실 것 입니다.

필자는 사랑과 관용이 풍성한 예수님의 미소를 상상하면 행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삶을 보시며 미소 지으실 예수님을 생각하며 미소가 떠나지 않는 행복한 하루를 보냅니다.

안산시립합창단과 함께 하는 GBC블레싱 콘서트



미주복음방송에서는, 안산시립합창단을 초청하여 제 2회 블레싱 콘서트를 연다.

2월 24일 주일 오후 5시 30분에 남가주 동신교회에서 열리는 제 2회 블레싱 콘서트는 1부와 2부로 나뉘어 진행되며 1부는 찬양곡 중심으로, 2부는 아리랑 뱃노래 등의 우리 귀에 친숙한 민요곡들이 연주할 예정이다.

안산시립합창단은 2만여명의 세계합창지휘자들이 가입한 미국합창지휘자협회(ACDA)에서 매 2년마다 개최하는 내셔널 컨퍼런스에 수차례 초청받아 세계 지휘자들로부터 최고로 인정받는 합창단이다. 특히 IFCM(세계합창연맹)이 뽑은 세계 22개 합창단 중 최고 수준이라고 극찬을 받았다.

입장료는 1인당 $20이며 티켓 구입에 관한 문의는 미주복음방송 애나하임본사 (714) 484-1190이나 LA스튜디오 (213) 331-1190으로 하면 된다.

Miracle! You can make it
World Share

당신의 일부를 나누면
한 아이의 인생 전부가 바뀝니다.

World share USA는
국제 구호 NGO 단체입니다.
월드쉐어 USA는 UN과 함께합니다.
월드쉐어 USA는 질병과 기아에서
허덕이는 고아와 절대 빈곤 아동들을
사랑으로 후원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어린이들에게 희망의
빛이 됩니다.



사랑과 섬김으로 세상을 밝히는 World Share가
바로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World Share USA
621 S. Virgil Ave. #260, LA, CA90005

▪ 후원 문의 : 강태광 목사 T.(323)578-7933

온전한 용서의 유익

마태복음 18:15-35



서울 성은교회 목사 장 재 효

본문 마태복음 18:15-35

15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16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증참케 하라 17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18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19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20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21 그 때에 베드로가 나아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일곱 번까지 하오리이까 22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게 이르노니 일곱 번뿐 아니라 일흔 번씩 일곱 번이라도 할지니라 23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계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24 회계할 때에 일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25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한 대 26 그 종이 엎드리어 절하며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27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28 그 종이 나가서 제게 백 데나리온 빚진 동관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으라 하매 29 그 동관이 엎드리어 간구하여 가로되 나를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30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저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31 그 동관들이 그것을 보고 심히 민망하여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고하니 32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33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34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이니라 35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권면을 배척하고 회개를 거부한다면

본문은 교회의 형제가 죄 짓는 것을 보았을 땐 그 사람과 단 둘이 만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죄를 회개할 수 있도록 권면하고 또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면서 용서받을 수 있도록 선도해 주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사실을 부인하고 양심을 속이며 오히려 상대를 욕하고 권면을 배척한다면 그 사람의 잘못을 아는 같은 교회 성도 두세 사람과 함께 말마다 증참(증인으로 참여하게 함)하게 해서 그 사람의 죄를 알고 있음과 이 죄로 말미암아 피해를 준 상대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보상해야 할 것은 철저히 보상하고, 용서를 받고 더불어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받아야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는 고사하고 도리어 화를 내고 패악한 반응이 나오면, 교회에 말하고, 즉 목자에게 말을 해서 예수님을 믿고 하늘 소망을 가꾸자는 성도들 앞에서 그 사람의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종용해서 그 영혼을 살리도록 힘써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교회 회중이 기도하고 권면을 해도 듣지 아니하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취급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교회에서 내 보내라는 것입니다.

21절에 베드로가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일곱 번까지 하오리이까"하며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 당시 랍비들의 의식 속에 세 번까지 용서해 주는 것으로 한정되어 있었던 시대에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일곱 번 까지 용서하는 아량을 보이며 물었던 것입니다. 이 질문에 예수님은 "네게 이르노니 일곱 번뿐 아니라 일흔 번씩 일곱 번이라도 할지니라"하십니다. 이 말씀은 490번까지 용서해주라는 의미가 아니라 무한대로 용서하라는 말씀이십니다. 상대가 너의 권면을 받고 회개만 한다면 무제한으로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에게는 죄 지을 근성이 있다는 것을 의식하시고 하신 말씀입니다.

일만 달란트 빚진 자의 무자비함

본문 23절부터는 예를 들어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임금의 종이 일만 달란트(장정이 삼십 삼년간 일해서 쓰지 않고 모아야 하는 돈)를 빚졌는데, 불쌍히 여겨 탕감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돌아가는 길에 그에게 백 데나리온 빚진 동관이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이를 본 동관들이 엄청난 금액을 탕감받고 돌아오던 길임을 알기에 그의 하는 일이 심히 민망하여 그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보고했습니다. 이를 알게된 임금은 그 종을 다시 불러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고 하며 꾸짖어 그 빚을 다 갚도록 옥졸들에게 맡겼습니다.

35절에"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하셨습니다.

신명기 19:15~19에 "사람이 아무 악이든지 무릇 범한 죄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아무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 말함이 있으면 그 논쟁하는 양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당시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사실하여 그 증인이 위증인이라 그 형제를 거짓으로 무함한 것이 판명되거든 그가 그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 한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일이라도 온전히 사실을 확인한 후 처벌하라는 것입니다.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라

야고보서 3:2에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에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을 순종케 하려고 그 입에 재갈 먹여 온 몸을 어거하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실수가 많습니다. 심지어 하지 않은 말까지 보태가며 사람을 이간질하고 모함하기도 합니다. 두 사람 사이에 일이 생겼을 땐 먼저 용서를 빌고 다가서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선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진실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자세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차원이 더 성숙된 사람이 예수님 닮은 표시를 먼저 나타낼 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계속 상대의 잘못이라고 다투게 된다면 그 둘 모두가 하나님 앞에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26에는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호리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하셨습니다. 진심으로 네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네 죄 또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용서받을 생각은 말라는 의미입니다.

용서의 유익은 누구에게

그러면 온전한 용서의 유익은 상대방에 있는 것인지 내게 있는 것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행한 작은 죄라도 그것을 용서하고 오히려 그를 위하여 베풀고 위로하며 그 사람의 그릇됨이 자신의 잘못으로 인한 것으로 깨달아 알 때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사람이 될 것이며 계속해서 쓰임 받는 하나님의 종이 될 것입니다.

작은 일에도 자존심을 내세우며 결코 그 상대에게 질 수 없다는 마음으로 서로 대립하다가는 결국엔 서로가 마귀 앞잡이 노릇을 하게 됩니다.

하늘에 소망을 둔 사람들은 무슨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가 먼저 나올 수 있어야 합니다. 억울함과 힘겨움 속에서 하나님의 큰 위로를 깨달아야 합니다.

자신이 용서받고 용서해야 할 사람들을 기억하여 사람과 사람사이의 매듭을 온전히 다 푼 다음에 하나님 앞에 죄악으로 매듭지어진 많은 매듭들을 풀어달라고 간청할 수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은 조물주인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 피조물을 욕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 뭐 저런 것을 만들어 놓았냐고 푸념하는 것과 같고 결국 하나님을 능멸하는 것과 같게 됩니다. 상대편의 입장에 서서 이해하고, 할 수 있는 한 도우며,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상대에게 베풀고 나누며 살아야 합니다.

일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자신에게 일백 데나리온(만분의 일)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해서 도리어 옥에 갇힌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도 또한 그렇게 될 것입니다. 탕감받을 수 있었던 자신의 죄를 자신에게 지은 작은 죄를 용서하지 못해 하나님 앞에 자신의 큰 죄 또한 용서받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없어야 합니다.

성은교회 장재효 목사 TV / RADIO / 신문 / 인터넷 동영상 설교

한 국 선 교 설 교			
한 국 방 송 설 교		한 국 신 문 설 교	
CBS TV	목요일 오후 2시	경북 기독 신문	3면 설교
CTS TV	금요일 오전 6시	기도원 연합신문	3면 설교

해 외 선 교 설 교					
미 국 방 송 설 교			라 디 오 미 국 방 송 설 교		
COX TV 워싱턴DC.	화요일 오후 6시	목요일 낮 12시	AM1540 라디오 코리아	주일 오전 8시 / 동영상 설교 제공	
	토요일 오전 7시	주일 오후 10시30분	AM1590 시카고 기독교방송	월요일 오전 11시 20분	
CTS TV	수요일	서부 오후 4시30분 / 동부 오후 7시30분			
	토요일	서부 오후 6시 / 동부 오후 9시	AM1190 LA 미주 복음방송	월요일 오후 5시 / 하와이 현지시간 오후 5시	
미 국 신 문 설 교			AM1310 기쁜소리방송	화요일 오후 7시30분	금요일 오후 2시30분
기독일보	5면 설교	오프라인 칼럼 설교			
	인터넷신문 설교	온라인 칼럼 설교	FM91.5(SCA) AM1650 LA 미주기독교방송	수요일 오후 1시, 오전 2시	

지구촌 어디서든 YOU TUBE에서 "장재효 목사" 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시청 가능합니다.

提供 국제성은복음선교회



혈당수치가 내려가면
행복지수가 올라갑니다

식후 혈당 억제를 도와 혈당 걱정 없는 인생, 이제 **프로지**로 활짝 웃으세요.

당뇨의 근본적인 치료
비만의 개선
Cyclo-Z 세계최초 당뇨치료를 위한 생약제재
전립선 질환 개선 및 알츠하이머의 예방

프로지
PRO-Z

혈당수치 조절 및 혈당관리의 시작

나이와 상관이 없으며 빠를수록 좋습니다.

당뇨병 환자 10명 중 3명은 자신이 당뇨병 환자라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연령대별 당뇨병	30~44세	45~64세	65세 이상
환자 인지율	54.4%	73.2%	81.3%

특히, 30~44세의 젊은 당뇨병 환자는 거의 절반에 가까운 환자가 당뇨병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일본의 전국 약사 1,000명에게 당뇨병 신지식을 가르치고 있는 가사하라 도모코 약사의 저서 "당뇨병, 약을 버리고 아연으로 끝내라" 에서 미네랄의 하나인 '아연'에 당뇨병 치료의 열쇠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당뇨약만으로는 당뇨병이 낫지 않는다. 우리가 먹은 음식은 체내에서 대사를 거쳐 에너지로 변한다. 그 에너지의 재료가 되는 물질을 3대 영양소(탄수화물·지방·단백질)라고 하며, 이 영양소들이 에너지로 바뀌는 작용을 돕는 물질이 비타민과 철, 아연, 마그네슘 등의 미네랄이다. 대사를 촉진하는 비타민이나 미네랄이 부족하면 애써 섭취한 3대 영양소가 에너지로 바뀌지 못하고 체내에 남아돌게 된다. 이러한 상황이 혈액 속에서 벌어지면 고혈당 · 고지혈증이 되고, 지방세포에 축적되면 비만으로 이어져 혈당이 올라가는 사태를 일으킨다. 이것이 당뇨병의 원인 중 하나다. 비타민이나 미네랄이 부족해서 고혈당이 되었다면 당뇨약을 먹거나 식사량을 줄이는 것만으로는 증상이 개선되지 않는 게 당연하다.

■ 아연이 인슐린 작용을 돕는다.
당뇨병 환자들의 가장 큰 고민은 꾸준히 약을 먹어 혈당을 낮추어도 당뇨병이 완치되지 않는 것이다. 인슐린 주사도 맞으면 맞을수록 동맥경화가 진행된다고 해서 마음이 편치 않다. 인슐린은 혈액 중의 포도당을 세포에 들여보내서 높아진 혈당을 낮추는 작용을 하는 유일한 호르몬이다. 인슐린이 작용하지 않으면 체내 세포 대부분은 혈액으로부터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끌어들이지 못한다. 생명을 유지하는 중요한 작용을 인슐린이 하는 것이다. 다행인 점은, 인슐린이 적절히 작용하도록 돕는 영양소가 있다는 사실이다. 바로 아연이다. 아연은 뼈의 신진대사를 비롯해 인간의 생명을 유지하는데 반드시 있어야 하는 미네랄이다. 간에서 쓸개즙을 만들어 내보내는 통로인 쓸개관에 필요한 효소와 콩팥에서 혈압을 조절하는 효소가 기능을 발휘할 때 인슐린이 필요한데, 이러한 인슐린의 작용에 아연이 꼭 필요하다. 아연이 부족하면 혈당 조절 기능이 나빠지고, 합병증의 위험성이 커지며, 빈혈과 식욕부진, 미각장애, 불면증에 걸리거나 활력이 솟지 않는 등 크고 작은 증상에 시달린다.

아연은?

체내에 소량 존재하지만 생체내 여러 효소의 구성성분이 되고, 핵산의 합성이나 정상적인 세포분열에 관여하는 필수적인 미량 영양소입니다.

당신의 체내 아연(Zn)은 제 기능을 다하고 있나요?

우리 몸의 필수 영양소 아연(Zn)은 당뇨와 같은 대사질환 및 특정상황에 노출된 분들일수록 체내흡수가 어렵고 흡수가 되더라도 짧은 시간 안에 유실되어 제 기능이 발휘되지 못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프로지의 특별함은 아연(Zn)의 흡수력과 지속력

송문기 박사의 세계적 특허 Cyclo-z 관련 기술이 적용되어 귀하의 체내 아연(Zn) 흡수력과 지속력이 혁신적으로 증가됩니다. 이제 활발한 아연대사(Zinc Metabolism)가 가져다 주는 변화를 직접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임상실험이 입증하는 프로지의 효능!

40년간 Zinc Metabolism을 연구해온 송문기박사는 아연이 근육세포의 당대사와 췌장 베타세포의 인슐린 반응도에 깊게 관여 되는 사실에 주목하여, 아연에 CHP를 첨가한 신합성 물질(CHP Plus Zinc) 프로지(PRO-Z)를 개발했습니다.
정부 연방 병원인 US VA Hospital에서 47명의 당뇨환자를 대상으로 12주동안 프로지(PRO-Z)를 복용한 결과 당화혈색소(HbA1c)가 평균 22%감소, 70% 환자에서 혈당수치가 29% 개선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Source:Metabolism, Vol 47, No 1(January),1998: pp 39-43)
미국특허 # 5,411,748 and #5,997,908

아시나요?

당뇨 치료, 당뇨의 근본적 개선을 위한 첫걸음

당화혈색소(HbA1c) 1%
줄이기에서 시작됩니다

혈당수치를 조절한다고 치료되는 것이 아닙니다.

당화혈색소를 **1%만** 줄여도 → 43%(하지절단) 37%(미세혈관합병증)등이 **줄어듭니다**

당화혈색소(HbA1c) 조절목표는 6.5%

당화혈색소 수치는 당뇨 합병증 발생을 반영하는 가장 좋은 지표입니다.
당화혈색소를 정상으로 유지하도록 혈당을 철저히 조절하면 할수록 합병증 발생은 줄어듭니다.

43%	37%	21%	14%	12%
하지절단 또는 말초혈관 질환	미세혈관 합병증	당뇨병 관련사망	심장마비	뇌졸증

당화혈색소 수치개선은 일시적 혈당조절이 아닌 신체기능의 회복에서 수치가 나타납니다.

송문기 박사, 그는 누구인가?

* 국가대표 재미과학자 송문기 박사
* 40년간 당뇨병, 비만 그리고 난치병 연구
* UCLA학대 생화학 분야 연구교수
* 미 연방재향군인병원 개발센터 수석 연구원등

송문기 박사의 Cyclo-Z

인슐린감도개선을 통한 당뇨치료제 신약후보물질로서 그 가치를 인정받아 미국 정부기관(V.A. Hospital)에서 투자지원, FDA승인 및 임상 2a를 성공적으로 진행중에 있으며 신치료제 상용화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송문기 박사는 이러한 업적과 인류사회에 미치는 공로를 인정받아 세계 3대 인명사전중 하나인 Marquis Who's Who에 등재되는 쾌거를 이루어 냈습니다.

1병 $69+Tax
3병 $180+Tax
6병 $350+ Tax



핵심은 아연의 흡수
(CHP 특허물질 아연의 흡수율이 획기적으로 증가)

문의 전화 213. 434. 1170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www.prozusa.com / prozusa1@gmail.com

PRO-Z USA Inc.
미국 공식 판매처



컴패스미션쳐치 Ministry Forum

교회에서 사라져 가는 2세들 길을 안내할 나침반은?

조지아주립대학(UGA) 한인 영어권 학생들을 위해 세워진 컴패스미션쳐치(C2M, 담임 데니 박, 캐더린 리-박 목사)가 지난 7일(목) 비전교회(담임 정경성 목사)에서 미니스트리 포럼을 열고 2세 사역에 대한 경험과 비전을 나눴다. 이날 모임에는 지역교회 1, 2세 목회자들이 참석해 관심을 드러냈다.

발제자로 나선 데니 박 목사는 '조용한 탈출(Silent Exodus)'로 표현되는 2세들의 탈교회 현상과 대책 그리고 한인교회들의 역할에 대해 설명했다. 1994년 LA Times에서 처음 사용된 '조용한 탈출'은 많은 한인 이민 교회들의 2세들이 20세 이전에 70%, 30세 이전에 85% 이상이 교회를 떠나는 현상이다. 이는 비단 한인 이민 교회들 만의 현상은 아니다.

미국 교회들 또한 이러한 젊은 세대들의 지속적인 탈출을 막기 위해 노력해 왔다. 가족 사역은 그 대표적인 노력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교회들은 여전히 다음 세대를 잃어가고 있다. 데니 박 목사는 "우리들은 이 현상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지만 청소년들과 함께 사역하면서 발견한 사실은 청소년 시기 성장과 발전의 단계 중 하나로 이러한 '반항'이 있다는 것이다. 만일 대학 캠퍼스에 영적인 반항의 시기를 겪는 청년들을 돌봐줄 교회가 없다면, 비판적인 시각으로 그들의 신앙에 질문을 던지는 그들이 교회의 도움 없이 어떻게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가지게 됐다"고 말했다.

박 목사는 "UGA는 부모들이 자녀들을 보내고 싶어하는 조지아 내 3개 대학 중 하나이다. 이곳은 조지아 서던 대학처럼 그다지 외진 곳에 있지 않지만 한어권 교회만 있을 뿐 영어권 아시안 어메리칸 교회는 존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우리의 교회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를 위한 교회는 없어요"라는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밝힌 박 목사는 그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UGA에 에덴스 교회(노스포인트교회의 자매교회), 그레이스 에덴스, 리빙 호프 등 좋은 교회들이 많다. 이들 역시 1000명 이상의 학생들이 연계된 웨슬리와 같은 훌륭한 캠퍼스 사역을 갖고 있지만, 우리 학생들은 그곳에서는 온전히 환영 받거나 편안함을 느끼지 못했다고 한다.

우리 자녀들과 같이 2.5세대에 속하는 학생들은 주류 문화에 온전히 융화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던 것이다. 그들은 아시아권에서 자라왔으며, 그들 중 많은 아이들이 한인 교회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들은 비슷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이들에게 더 편안함을 느끼며 자랐다"

박 목사는 지난 3년 간의 경험을 나누며 "그들은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감정적으로 정신적으로 매우 불안정하고 연약한 상태이다. 대다수가 우울증, 스트레스와 불안과 염려를 경험하고 있다. 우리가 느끼는 주 원인 가운데 하나는 애틀랜타 내 아시안 가정의 역기능적 요소로 인한 것이다. 많게는 50% 이상의 청소년들이 한 부모 가정이나 재혼 가정에서 자라나는 것을 본다"고 말했다.

박 목사는 "학생들이 진심으로 원하는 것은 무슨 대단한 연설이 아니라, 진솔한 사랑의 표현과 판단 받지 않고 받아들여지는 것이다"라며 사랑과 섬김을 통한 학생들의 변화에 대해 증거했다.

이들을 양육해 학교 졸업 후 그들의 교회를 섬기게 하는 사역을 펼치고 있다고 밝힌 데니 박 목사는 "많은 교회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아직은 그럴 때가 아니다' 혹은 '캠퍼스를 돌볼만한 재정적인 수단이나 인력이 없다'는 것이었다. 우리는 낙심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봤다"고 캠퍼스 사역에 대한 지역교회의 관심과 후원을 당부했다.

앤더슨 김 기자

NCKPC 원영호 총회장, 회원교회들에 '남은 자'의 역할 당부

미국장로교(PCUSA) 한인교회 전국총회 원영호 총회장이 최근 전국교회에 보내는 서신을 통해 PCUSA 한인교회들의 역할과 관련, '남은 자'라고 강조했다.

원영호 총회장은 서신에서 "2019 년도에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각 지교회의 사역이 풍성하시기를 기도한다"면서 "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남은 자'로서 하루하루 맡은 일에 충성하시는 귀한 섬김에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PCUSA 교단이 지난 2015년 결혼의 정의를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에서 '두 사람의 결합'으로 변경, 사실상 동성결혼을 헌법적으로 용인한 이후 현재까지도 PCUSA 내 많은 한인교회들이 방향성에 대한 고민이 이어지고 있다.


원영호 총회장

이후 동성애 이슈로 인해 교단을 탈퇴하는 교회들도 있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원영호 총회장이 서신을 통해 회원교회들에 '남은 자'의 역할을 강조한 것은 한인교회들이 PCUSA 교단 내에 영적 중심을 계속 지켜가야 한다는 방향성 제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실제로 원영호 총회장은 5-6년 전 PCUSA의 동성애 이슈가 한창이었던 당시에도 "미국이 동성결혼을 인정한다고 시민권을 포기하겠는가? 오히려 그 시민권으로 끝까지 싸워야 하지 않는가? 우리도 교단에 남아 교단을 지켜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한인교회들이 교단에 남아 변화를 이끌어 내는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PCUSA가 동성결혼을 인정하는 교단헌법 개정안을 지난 2015년 승인한 가운데 뉴욕과 뉴저지 한인교회들이 소속돼 있는 동부한미노회가 25일 오후 1시 금강산 식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성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는 한편, 동성애에 관한 교단 헌법에 제약을 받지 않는 '노회 우산'의 효력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발표했다.

원영호 총회장의 '남은 자' 역학론은 지난 2015년 3월 PCUSA가 동성결혼을 인정하는 교단헌법 개정안을 승인한 직후 동부한미노회가 발표했던 기자회견문과도 내용상 연결이 되고 있다.

교회 및 선교회

LA 지역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예배 오후 2:30
목요일 예배 오후 7:30
주중 영혼의 샘 예배 오후 7:30(월,수, 금)
김성식 담임목사
LA백송교회
역성혁명을 통해 시온의 대로를 만들어 형통의 축복을 받자
3251 W. 6th St. Suite B1, LA, CA 90020
T. (213) 245-6616

주일예배 오전 10:50
평신도 리더쉽훈련 매주 수 오후 7:00
금요 말씀과 삶 공부 오후 7:30
토요아침예배 오전 9:00
써니김 담임목사
LA씨티교회
4322 Wilshire Blvd. #301, LA, CA 90010
T. (323) 833-9090

1부예배 오전 8:00 EM예배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10:00 새벽예배 오전 5:20(월-금)
3부예배 오전 11:30 오전 6:20(토)
주일예배 - 버질중학교(1가와 버몬트 코너) 152 N, Vermont Ave., LA, CA 90004
주중모임 - 사랑올림픽센터 2610 W. Olympic Blvd, LA, CA 90006
김기섭 담임목사
www.LAsarang.com
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깨우고,이민2세를책임지며,이민가정을치료하며,선교명령을순종하는교회
사랑올림픽센터
261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
주중연락처 T. (213)386-2233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성경공부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 - 토)
장태원 담임목사
LA세계선교교회
선교를 통해 행복한, 사랑의 공동체
3407 W. 6t. #412 (6가와 카탈리나), LA, CA 90020
T. (213) 909-6473 / www.missionla.org

Rain down 주일예배 오후 3:30
Heart of David 금요예배 오후 8:00
Lighter 전도 (매월 마지막주 금요일)
최순환 담임목사
New Church
전도와 양육으로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는 큰 군대
1521 S. Hill St., LA, CA 90015
T. (310) 905-2228 / newchurchdtla.com

1부예배 오전 9:0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화-금)
Youth예배 오전 11:00 토요연합새벽 오전 6:20
한천영 담임목사
갈릴리선교교회
가족같은 교회, 가족 이상의 가치
2212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35-6412 / gmcchurhc.com

1부예배 오전 8:00 새벽예배 오전 5:30 (월-금)
2부예배 오전 10:30 오전 6:00 (토)
3부예배 오후 2:00 유초등부 오후 10:30
금요기도회 오후 7:00 중고등부 오후 10:30
강진웅 담임목사
갈보리믿음교회
그리스도와 / 성도와 / 이웃과
3300 Wilshire Blvd. Los Angeles, CA90010
T. (213) 365-8880 / F. (213) 365-8802

주일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토) 오전 6:00
엘리야 김 담임목사
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나아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
264 S. Rampart Blvd. #276, LA, CA 90057
T. (213) 272-6031 (3가와 Rampart Blvd 교차로 북동쪽에 위치)

1부예배 오전 7:30 새벽예배 오전 5:30 (월-토)
2부예배 오전 9:30 수/금요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전 11:45
4부예배 오후 1:30(영상예배)
진유철 담임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말씀 위에 세운 뜻을 이루어가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1부예배 오전 9:00 성인 EM예배 오후 12:30
2부예배 오전 11:00 한어청년예배 오후 12:30
찬양예배 주일오후 2:30 새벽예배 화~토 오전 6:00
수요예배 오후 7:00
박헌성 담임목사
나성열린문교회
하나님나라의 비전을 실현하는 교회
1218 S Fairfax Ave, Los Angeles, CA 90019
T. (323) 634-9191 / laopendoor.org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예배 저녁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유초등부 오전11:00 6:00(토)
중고등부 EM 오전11:00
김문수 담임목사
나성제일교회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믿음의 공동체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T. (213) 388-7101

1부예배 오전 08:30 영어예배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00
3부예배 오후 6:00 새벽예배 오전 5:30 (화~금)
오전 6:00 (토)
지용덕 담임목사
미주양곡교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민사회와 가정을 섬기는 말씀공동체
519 S. Western Ave., LA, CA 90020
T. (213) 380-9377,(213) 267-0030 www.churchla.org

1부예배 오전 10:30
2부예배 오후 1:30
성경공부 오후 3:00
새벽예배 오전 5:30 (월-금)
김경렬 담임목사
산타모니카한인교회
영혼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1520 Pearl St., Santa Monica, CA 90405
T. (310)502-9999 / www.smkc.us

대예배 1부 오전 8:00 새각족 성경공부 오후 1:00
대예배 2부 오전 11:00 중보기도 (목) 오후 1:00
유년주일학교 오전 11:00 금요찬양 오후 7:00
중고등부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6:00 (화~토)
정병노 담임목사
새 일 교 회
LA Sehil Presbyterian Church
760 S.Westmoreland Ave, Los Angeles, CA 90005
Tel. (213)384-8690. (213)820-7240 Email : lasehil2011@gmail.com
(8가와 Westmoreland 코너 First Baptist Church 안에 있습니다)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예배 오후 7: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화~토)오전 6:00
유년부 오전 11:00
중고등부,EM 오후 12:30
정세훈 담임목사
새한교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교회, 하나님을 높이는 교회 (열왕기상 7:21)
2531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06
T. (213)386-0685 www.lasaehan.com

1부예배 오전 9:00 청년부 오후 1:30
2부예배 오전 10:50 수요예배 오후 7:30
영유아부,유초등 오전 10:50 새벽예배 오전 5:30 (화~금)
중고등부 오전11:00 토요새벽예배 오전 6:00
정인호 담임목사
예수마을교회
행복한 교회 행복한 교인
616 Shatto Pl.. Los Angeles, CA 90005
T. (213)249-9191 ,www.lajvc.webchurch.kr

1부예배 오전 8:30 EM 영어예배 오전 10:00
2부예배 오전 11:15 수요예배 오후 7:30
중고등부 오전 10:0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 5:30
유치부, 유년 초등부 오전 11:00 (토) 오전 6:00
곽건섭 담임목사
예은장로교회
1401 W. Washington Blvd., LA, CA 90007
T. (213)745-9997

주일예배 오전 10:45 금요예배 오후 8시
주일오후예배 오후 1:00 새벽예배 오전 5:45(월-금)
매일 밤 기도회 오후 9시
박은종 담임목사
예일한인교회
치유하는 교회, 회복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1611 Beverly Bl., Los Angeles, CA 90026
T. (213) 975-9191 www.wpcjesus.com

1부예배 오전 09:3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기도회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20 (월-금)
김종호 담임목사
예향선교교회
복음의 향기로 지역과 열방을 섬기는 교회
4323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19
T. (213) 281-1196 / E.isaacdew@hotmail.com

주일 1부예배 (본당) 오전 8 : 30 주일학교 오전 11 : 00
주일 2부예배 (본당) 오전 11 : 0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 : 00
금요찬양예배 (본당) 저녁 8 : 3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 5 : 30
리셋예배(열린예배) (소예배실) 오전 11 : 00
정장수 담임목사
올림픽장로교회
세상을 구원하고 행복을 주는 교회 같은 말, 마음, 꿈, 열매
3020 Wilshire Bl. #160., Los Angeles, CA 90010
T.(213)387-1700 C.(213)500-4737 / olympic-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GCEM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0:30 수요/금요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후 1:00 새벽예배 오전 6:00 (월~토)
라티노 오후 6:30
신승훈 담임목사
주님의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섬기고 사랑하는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1부예배 오전 8:3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영어부,유아,아동부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매주 화~토 오전 6:00
청년부 예배 오후 1:30
김 신 담임목사
주향 교회
나눔의 행복이 있는 교회
3412 W. 4th St., Los Angeles, CA 90020
T. (213)383-4951 / 4952 F. (213)383-5085

1부예배 오전 9:00 금요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 (화-금), 오전 6:30 (토)
중고등부, 유초등부 오전 11:00
4대 사역 : 유아원 사역, 후드 사역, 장학 사역, 십자가 사역
이명수 담임목사
청운교회
선교에 흐름,소.친.초 정신의 흐름,바른교회관의 흐름
4465 Melrose Ave., Los Angeles, CA 90029
T. (323) 667-9920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예배 오후 7:0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은혜집회 오후 8:00
유치부,유년부 오전 11:00 주중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중고등,청년대학부 오전 11:00 토요새벽기도회 오전 6:00
김은목 담임목사
평화교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성공을 통해 하나님사랑과 이웃사랑에 힘쓰는교회
2538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06
T. (213) 251-9191 www.pcjc.church

1부예배 오전 9:00 유년부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Youth 주일학교 오전 11:00
수요기도회 오후 8:00 청년대학부 오전 11: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 (화~토)
박효우 담임목사
풍성한 교회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회복하며 선교하는 교회
2911 Beverly Blvd., LA, CA90057
T. (213) 381-9490

주일1부예배 오전 8:00 E.M(대.청) 오후 1: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8:00
한글학교주일 오전10:00 새벽기도 오전 5:30 (월-금)
유초등부 오전11:00 오전 6:30 (토)
중고등부 오전11:00
곽부환 담임목사
한마음제자교회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213)321-4433

주일예배 오전 11:00
목요집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 (화~토)
이순환 담임목사
한샘교회
The Church By the Stream / 은혜의 샘, 생수의 강
1911 Wilshirte Bl., LA, CA 90057
T. (213) 505-3838 / yes9389@hotmail.com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수요예배 오후 7:30
강지원 담임목사
한우리장로교회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치유와 회복이 있으며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
1932 10th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02-6709

LA동부, 라스베가스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45
4부예배 오후 1:3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화-금) 오전 5:30, (토)오전 6:30
고태형 담임목사
선한목자교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를 꿈꾸는 공동체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909)591-6500 sunhan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예배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이희철 담임목사
갓스윌연합교회
여호와를 찾을때
904 E. D St., Ontario, CA 91764
T. (909) 268-4279 / gwa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6:00(토)
정동석 담임목사
나성교회
1620 N.Fullerton Rd. La Habra Heights, CA 90631
T. (562) 690-7979 F.(562) 690-0038

1부예배 오전 8:0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0:00
2부예배 오전 11:00 유초등부/유치부 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10:00 청년부 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6:00
신용환 담임목사
나성한미교회
복음의 본질위에서 성령이 감동하는 교회
2727 N. Durfee Ave., El Monte, CA 91732
T. (626) 444-0058

주일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수요예배 오후 8:00 (토요일) 오전 6:00
주일학교 주일오전 10:30
김성원 담임목사
남가주새소망교회
예배 성령 선교로 세움 받아 함께 달려가는 예수그리스도 공동체
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T. (562)674-3016, cell. (562)417-1800
www.newhopechurchla.com

1부 예배 오전 8시
2부 예배 오전 10시 45분
중보기도모임 오전 9:15~10:00(주일)
수요성경공부 오후 8시
금요찬양예배 오후 8시
새벽기도회 오전 5시 30분(월~금), 6시 30분(토)
장주영 담임목사
뉴송교회
새 시대를 책임지는 건강한 교회
1550 Greenbriar Ave, Corona, CA 92880
T. (951)272-9126 / www.newsongcorona.com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수요기도회 오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조응철 담임목사
라스베가스갈보리장로교회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 (702) 579-7576

1부예배 오전 7:3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15 EM 2부예배 오전 11:45
3부예배 오전 11:35 수요말씀강해 오후7:30
4부 청년예배 오후 1:45 새벽예배 오전(월-금) 5:30 (토) 오전 6:00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F. (909) 622-1480 / inlandchurch.org

1부예배 오전 7:45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45
2부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3부예배 오전 11:45 오전 6:00 (토)
고승희 담임목사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기도회 오후 9:00
창대교회 사랑의 나눔터(매주 토) 오전10:00~11:00
새벽예배 오전 6:00(월 ~토)
이춘준 담임목사
창대장로교회
하나님께 영광!
3630 N. "E" ST., San Bernardino, CA 92405
T.(951) 966-9191

주일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 오전 5:30(화~금)
수요기도 오후 7:30 오전 6:30(토)
중국어 성경공부 오후 7:30(화) 汉语查经班：周二 晚上 七点半。
조준민 담임목사
치노밸리 아름다운 교회
가정과 교회와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5135 Edison ave, suite 13, Chino, CA 91710
T.(714)461-6412

주일예배 오전 9시 (지성전) 금요예배 오후 7:30
오전 11시 (본성전) 매일QT 월~금 오전 6:00
토요새벽예배 오전 6:00
최승목 담임목사
본성전 : 75580 E. Ramon Rd., Thousand Palms, CA 92276
지성전 : 66700 E. 5th St., Desert Hot Springs, CA 92240
팜스프링스한인감리교회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는 교회"
75580 E Ramon Rd, Thousand Palms, CA 92276

1부예배 오전 8:00 성경공부 오후 7:30 (화)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EM예배 오후 1:00 EM성경공부 오후 7:00 (금)
중보기도모임 오전 10:30 금요성경공부 오후 7:00
송재호 담임목사
할렐루야한인교회
제자된 삶을 실천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공동체
19648 Camino De Rosa, Walnut, CA 91789
T. (909) 595-3110 hnsla@hnsla.org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밸리, 글렌데일, 파사데나

주일 1부 오전 7:00 JCCC Academy
주일 2부 오전 9:00 오전 10:15, 오후 12:40 (교육관)
주일 3부 오전 11:00 EM 오전 11:15 (교육관)
(Blended Service)
사랑부 오전 8:45 (교육관)
김경진 담임목사
기쁜우리교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333 E. Colorado St, Glendale, CA 91205
T. (818)662-0400 www.joyfulccc.org

주일 1부 오전 8:00 중고등부 오전 10:30
2부 오전 10:30 한어청년 오후 12:30
EM예배 오후 12:30 수요예배 오후 7:30
유년부 오전 10:3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이정현 담임목사
만남의교회
거룩한 믿음으로 도약하는 교회
18101 Lassen St. Northridge,CA 91325
T. (818)882-9191 F. (818)882-9777 www.churchmannam.com

1부 예배 오전 8:00 한글학교 주일 오전 10:00
2부 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금)
중고등부 오전 11:00 Awana 오후 8:00(금)
유년부 오전 11:00 Youth Friday Service 오후 8:00(금)
EM 오후 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오전 6:00(토)
방수민 담임목사
베다니한인교회
문턱낮은 교회 변화받는 교회 찬미하는 교회
2401 N. Brighton St., Burbank, CA 91504
T.(818) 845-5431 F. (818) 845-1683 / bkchurch.org

주일 1부 오전 8:00 EM예배 오전 11:30
주일 2부 오전 9:30 사랑의 빛 반 주일오전 11:30
주일 3부 오전 11:30 금요영성집회 오후 7:45
젊은이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윤대혁 담임목사
사랑의빛선교교회
말씀위에 굳게 서리라
2801 E Colorado Bl., Pasadena, CA 91107
T. (626)744-9191 www.lolmc.org

1부 예배 오전 8:30 EM예배 (1부)오전 9:00
2부 예배 오전 11:00 EM예배 (2부)오전 11:00
금요성령집회 오후 7:30 한어 청년부 주일오후 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오명찬 담임목사
웨스트힐장로교회
예수님처럼 소통하는 교회(Communicate Like Jesus)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T. (818) 884-2391

주일 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10: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6:00(토)
곽덕근 담임목사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밸리채플 Valley Chapel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00
19514 Rinaldi St., Northridge, CA 91326
T.(818)363-5887
MP채플
주일 1부 예배 오전 9: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30
588 Atlas Ave, Monterey Park, CA 91755
Tel: (323) 837-0900
최 혁 담임목사
주안에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T. (818) 363-5887 / www.In-ChristCC.org
e-mail: iccc.office1@gmail.com

1부예배 오전 8:0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40 EM 2부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교육부 오전 11:30 새벽예배(매일) 오전 5:30
민종기 담임목사
충현선교교회
불러서(Calling), 고치고(Healing), 기르며(Maturing),맞선다(Confronting)
5005 Edenhurst Ave. , Los Angeles, CA 90039
T.(818) 549-9191 / F.(818)549-9199 / choonghyun.org

"인권위법의 '성적지향' 양심·종교·표현의 자유 침해"

조영길 변호사, '국가인권정책' 토론회서 지적



'국가인권정책,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가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조경태 국회의원(자유한국당)이 주최하고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동반연), 전국학부모교육시민단체연합, 국민을위한대안이 주관한 '국가인권정책,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가 11일 오후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진행됐다.

행사는 김지연 대표(한국가족보건협회)의 사회로 조영길 변호사(법무법인 아이앤에스 대표)와 지영준 변호사(법무법인 저스티스 대표)의 발제, 김영길 대표(바른군인권연구소), 전윤성 변호사(사단법인 크레도), 길원평 교수(부산대), 이현영 대표(국민을위한대안)의 토론 순서로 이어졌다.

특히 조영길 변호사가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차별금지 사유 '성적지향'의 폐해 및 삭제 개정의 필요성"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국가인권위법 제2호 제3호는 차별금지 사유 중 하나로 '성적지향'을 명시하고 있다.

조 변호사는 "이 문구(성적지향)가 일단 법으로 제정된 이후 이는 우리나라에서 동성 간 성행위에 대한 반대행위를 법률의 이름으로 억제시키는 놀라운 위력을 발휘하기 시작했다"며 "동성 간 성행위에 대한 법적·도덕적 가치판단이 정반대로 뒤집히는 극단적인 변화가 발생하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라고 했다.

그는 "동성 간 성행위를 포함하는 '성직지향'을 어느 국가의 법률에 차별금지 사유로 포함시킨다는 것은 동성 간 성행위를 더 이상 도덕적으로 비난하지 못하게 된다는 의미"라며 "따라서 부도덕한 동성 간 성행위가 포함되는 '성적지향'은 법률상 차별금지 사유에 결코 포함돼선 안 된다"고 했다.

조 변호사에 따르면 동성 간 성행위는 군형법에서만 법률로 금지하고 있을 뿐, 다른 법률에서는 이에 대해 따로 금지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법률로 그것을 보호하지도 않는다. 다만 대법원(2008년)과 헌법재판소(2002·2011·2016년)는 그것을 "비장상적 성행위"로 "객관적으로 일반인들에게 혐오감을 주고 선량한 성도덕 관념에도 반하는 성적 만족행위"로 규정했다.

그는 "혐오감이 발생해 정당한 혐오감을 표현하는 것은 그 방법이 실정법률을 위반하는 것이 아닌 한 허용돼야 한다"며 "범죄의 동기가 특정한 성도덕이 되었다고 하여 그 성도덕을 없애야 한다는 것이 결코 정당화 될 수 없다. 정당한 도덕도 얼마든지 범죄의 동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조 변호사는 "그런데 동성 간 성행위에 대해 이를 부도덕하다고 평가할 것인가, 아니면 도덕적 문제가 없다고 평가할 것인가는 개인마다 다를 수 있다"며 "(그러므로) 우리나라 법제 하에서 동성 간 성행위에 대해 누군가 이를 적극 지지하더라도 아무런 법률적 제재를 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처럼 "도덕적 가치 판단이 달라지고, 또 상호 간에 치열하게 가치관의 다툼이 있는 사유에 대해 법률은 어느 특정 가치관이 지지하는 행위만을 보호하고 다른 가치관을 지지하는 행위를 법으로 억제해선 안 된다"는 게 조 변호사의 주장이다. 만약 그렇게 하면 그것이 "우리나라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종교·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기" 때문이다.

조 변호사는 "그런데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금지법리는 도덕적 가치 판단에 있어서 사람들 사이의 견해가 나뉠 수 있는 대표적인 사안인 동성 간 성행위를 차별금지의 사유로 삼는 것이 된다"며 "(따라서) 마땅히 삭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영준 변호사가 '학교 등 공교육을 통한 성평등과 인권교육'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했고, 김영길 대표가 '인권의 담론 과정에 나타난 현상과 문제점', 전윤성 변호사가 '동성애·젠더(성)평등 법제화 전개 과정과 대응방안', 길원평 교수가 '국가인권위원회의 동성애 옹호 활동의 법적 근거-성적지향 차별금지 조항', 이현영 대표가 '국가와 국경을 해체하는 외국인 인권정책'이라는 제목으로 각각 토론했다.

한편, 이날 발표와 토론에 앞서 조배숙 국회의원(민주평화당)이 인사말을 전했다. 조 의원은 "한 국가에서 인권정책은 굉장히 중요하다. (이에 대해)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을 수 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적 합의"라고 했다.

조 의원은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정책 방향은 근본적으로 시각이 편향되어 있다. 큰 잘못을 범하고 있다. 이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성적지향이나 동성애에 대한 각자의 생각은 다를 수 있고, 이에 따른 표현과 행동은 사상과 표현, 양심의 자유와 관계가 있다. 이런 것까지도 혐오라는 이유로 억압한다는 건 반인권정책이다. 국가인권위가 좀 더 신중해야 하고 많은 의견을 수렴해 균형적인 정책을 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진영 기자

오정호 목사 "차기 부총회장 선거 출마 않을 것"



오정호 목사

오정호 목사(새로남교회)가 "오는 제104회 총회 부총회장 선거에 출마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예장합동 교단지인 '기독신문'이 11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오 목사는 최근 "총회가 품격있는 정치 실현을 위해 진정한 협치와 상호존중의 시대를 열어야하며, 금권선거·금권정치를 용납해서는 안 된다. 우리 총회가 오직 주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총회가 되기를 소망하기를 바란다"고 설교하며 이 같이 밝혔다.



워싱턴 D.C에서 열린 낙태 반대 연례 시위에 수천 명의 참가자들이 참가했다.

뉴욕만? 이미 임신 후기 낙태 가능한 주 7개

미국에서 뉴욕만 출생 전까지 낙태를 허용하는 유일한 주는 아니다. 뉴욕 의원들이 최근 낙태에 대한 임신 기간 규정을 제거하기 전, 미국 7개 주를 미롯해 워싱턴 D.C는 이미 임신 후기 낙태를 허용하고 있었다. 세계적인 낙태 지지 단체인 '거트마커 연구소(The Guttmacher Institute)'가 언급했다시피, 모든 주들은 임신 후기 낙태를 금지하고 있으나 특정 상황에서 예외를 허용한다. 반낙태 단체인 '오퍼레이션 레스큐(Operation Rescue)'에 따르면, 예외가 되는 상황에는 "태아의 신체 기형, 어머니의 건강 상태가 포함되며, 여기에는 '정신 건강'도 포함된다."

7개 주, 현재는 8개로 늘어난 주들은 낙태에 대한 임신기간 규정이 없다. 알래스카, 콜로라도, 뉴햄프셔, 뉴저지, 뉴멕시코, 뉴욕, 오레곤, 버몬트와 워싱턴 D.C.가 이에 해당한다. 미국 수도를 비롯해 몇몇 주들에서 출생전까지 낙태를 법제화하고 있음에도, 임신 후기 낙태를 실시하고 있는 진료소는 미국 내 5곳에 불과하다. 이 중 2곳은 출생 전까지 낙태를 허용하는 주들에 있으며, 나머지 3곳은 임신 후기 낙태를 금지하나, 예외를 허용하는 주들인 캘리포니아, 메릴랜드, 오하이오에 있다.

임신 기간에 따른 낙태 제한을 두지 않는 주들 가운데, 오직 콜로라도와 뉴멕시코만 32주까지 낙태 시술을 하며, 32주가 지난 경우 각 사례별 원칙을 따른다. 콜로라도 볼더에 위치한 '워렌 헌 볼더 클리닉(the Warren Hern's Boulder Abortion Clinic)'과 뉴멕시코 앨부커키에 있는 '커티스 보이드의 사우스웨스턴 여성의 선택(Curtis Boyd's Southwestern Women's Options)'이 그곳이다. 낙태 임신기한 제한을 두지 않는 주들에 있는 진료소들은 그들 나름의 제한을 두고 있다. 오퍼레이션 레스큐에 의하면, 뉴저지는 25주까지, 오레곤은 24주, 뉴햄프셔는 17주, 알래스카와 버몬트는 16주까지 낙태를 허용한다. 워싱턴 D.C의 진료소는 임신 27주까지 낙태를 허용한다.

오퍼레이션 레스큐가 지난해 실시한 진료소 조사에 따르면, 뉴욕에는 87개 낙태 시술소가 있으며, 60곳이 임신 14주까지 낙태 시술을 시행한다고 말한다. 이들은 "17개 시술소는 23주, 그 이전까지로 낙태를 제한하며, 10곳은 24주 혹은 임신 6개월의 마지막 시점까지 낙태를 실시한다"고 말했다. 최근 민주당 소속인 앤드루 쿠오모 주지사가 서명한 낙태 법안은 "환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어느 때든지 허용될 뿐만 아니라 "임신 24주까지 면허와 자격을 지닌 전문가(practitioner)에 의해서도 실시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이는 이 전문가가 꼭 의사일 필요가 없음을 의미한다. 이에, 오퍼레이션 레스큐의 토니 뉴먼 대표는 "임신 후기 낙태 시술에는 특정한 훈련이 요구되며 전혀 안전하지 않다. 만약 자격없는 의사가 아닌 자가 이 시술을 하면, 더 많은 여성들이 목숨을 잃게 된다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오퍼레이션 레스큐는 "완전히 끝내기 까지 3일에서 4일이 걸리는 임신 후기 낙태를 실시하는 진료소는, 생명의 위험과 의료 책임 때문에, 미국내 10개가 채 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로드아일랜드의 의원들은 출생 전까지 낙태를 허용하는 두 가지 법안을 소개했다. 지나 리몬도(Gina Raimondo) 민주당 의원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서명할 것이라고 이미 선언했다.

버지니아에서는 캐시 트랜(Kathy Tran) 민주당 하원의원 역시 "여성이 분만하기 직전까지" 낙태를 허용하는 법안을 소개했다.

주디 한 기자

크리스 프랫 "21일 간 고기 등 안 먹는 '다니엘 금식' 했다"



CBS 방송에 출연한 크리스 프랫. ⓒCBS 제공

할리우드 영화배우 크리스 프랫(Chris Pratt·39)이 '다니엘 금식'을 했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10일(현지시간) 영국 크리스천포스트에 따르면, 프랫은 최근 스티븐 콜버트가 진행하는 '더 레이트 쇼'에 출연해 "다니엘 금식기도가 놀랍다"면서 "담임목사님께 영감을 얻어서 21일 동안 다니엘 금식기도를 했다. 새해 첫 날부터 3주간 고기, 설탕, 술을 안 먹었다"고 말했다.

콜버트가 "금식기도 중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도 포함되어 있나?"라고 농담하자 프랫은 "사자와의 대결은 지겨운 '심장강화운동'이다. 우리는 (금식) 마지막 날 (대결을) 한다"며 이를 재치있게 받아쳤다. 프랫은 "대중들의 시선을 받는 유명인으로 살면서 실제로 사자굴 속에 있는 것처럼 느껴본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교회에서 실제로 들었던 놀라운 말이 있는데, '만약 당신이 받는 조명이 당신 안에 있는 빛보다 더 밝다면, 그것은 당신을 죽일 것'이라는 말이다. 할리우드 스타덤은 실제로 밝은 조명과 같아서 항상 이를 볼 수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때로는 (다른 이들과) 공유할 수 있는 자아를 갖는 것이 당신을 죽일 수 있다. 아무것도 남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나눌 수 있는 빛을 가져야 한다. 이 빛은 다른 어느 불빛보다 밝은 빛이다. 그렇다면 당신은 살아남을 수 있고 당신의 일부를 구할 수 있으며 모든 것을 버리지 않을 수 있다. 이는 사실이다"라고 덧붙였다. 올해 초 프랫은 2,270만 명이 넘는 인스타그램 팔로워들에게 다니엘 금식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프랫이 언급한 '다니엘 금식'은 구약의 선지자 다니엘로부터 영감을 받아 21일 간 고기, 설탕, 술, 담배 등을 절제하며 육적인 욕구를 다스리는 신앙적 훈련으로 알려져 있다.

강혜진 기자

사우스베이, 토렌스

1부예배 오전 8:00 주일아침 성경공부 10:40
2부예배 오전 11:30 금요기도회 오후 7:00
3부 EWS 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유중고등부 예배 오전 8:40
이호민 담임목사
가디나선교교회
1044 W. 164th St., Gardena, CA 90247
Tel. 310)532-0191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유초등부 오전 11: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 오전 11:00
E.M 예배 오전 11:00 금요예배 오후 8:00
유치부 오전 11:00 토요새벽예배 오전 6:00
신태섭 담임목사
가디나 장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성령의 공동체
1340 W Gardena Blvd, Gardena, CA 90247
T. (310)217-9191 www.gpclove.com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 EM Bible Study 오후 7:30
1부예배(EM) 오전 9:3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2부예배(EM) 오후 11:00
이석부 담임목사
나성금란교회
기본으로 돌아가는 교회 (계 2:5)
3153 W.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310) 973-5106 / F. (310) 973-7429

1부예배 오전 8:00 EM예배 오후 1:30
2부예배 오전 9:30 한어청년부 오후 2:15
3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매일) 오전 6:00
김준식 담임목사
남가주샬롬교회
복음과 사랑을 전파하는 교회
20050 S. Vermont Ave., Torrance, CA 90502
T. (310)787-1004 shalomch.org

1부예배 오전 8:00 중/고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9:3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EM 1부 9:30/ 2부 11:00 새벽기도 오전 6:00(월-토)
권영국 담임목사
대흥장로교회
파송가라,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출3:9~10)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1부예배 오전 9:00 새벽기도 오전 5:15 (화-금)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유/초등부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30 주일학교 중/고등부 오전10:00
성가대연습 오전 10:20
서보천 담임목사
둘로스교회
영혼 구원하여 제자삼는 교회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951-3153

1부예배 오전 8:00 청년부예배EM 오후 1: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 (화-토)
강신권 담임목사
세계성경장로교회
말씀과 함께 세상 속으로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424) 257-8169 / F. (424)257-8170

1부 예배 오전 8:00 금요 예배 금요일 저녁 7:30
2부 예배 오전 10:45 새벽 예배 매일 오전 6:00
EM성인예배 오후 1:00
김경환 담임목사
은혜로교회
새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라
431 Madrid Ave. Torrance, CA 90501
Tel. 310)787-7766 / www.gwctorrance.co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열린예배 오후 1:30
이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롬 10:15)
이호우 담임목사
좋은소식교회
Good News Church
15435 S. Western Ave. #200, Gardena, CA 90249
T.(562) 453-5644

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5:30
EM예배 오전 10:45 금요성령대망회 금 오후 7:20
박성규 담임목사
주님세운교회
처음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T. (310) 325-4020 / F. (310) 325-4025

주일예배 오전 11:00
성경공부 훈련 오후 2:00
금요 중보기도회 오후 7:30
이상훈 담임목사
주비젼교회
하나님 마음으로 열방을 열자
1626 W. Gardena Blvd. #D. Gardena, CA90247
T. (714) 296-6783 www.sbhisvision.org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 (화-토)
3부예배 오후 2:00
이종용 담임목사
코너스톤교회
이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 F. (310) 530-8400 / cornerstonetv.com

주일1부 오전 8:00 수요예배 오후 7:30
주일2부 오전 9:30 새벽기도 월~토 오전 6:00
주일3부 오전 11:00
EM예배 1부 오전 9:30/2부 오전 11:00
고창현 담임목사
토렌스제일장로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1880-1900 Crenshaw Blvd, Torrance, Ca 90501
T. (310) 618- 2222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 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월~토 오전 5:30
김우준 담임목사
토렌스 조은교회
주님앞에 드려짐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는 공동체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 (310)370-5500 / www.torrancegcc.org

주일1부 오전 9:00
주일2부 오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월~금 오전 5:30 (1부), 6:30(2부)
윤 목 담임목사
한인소망교회
복음주의 신학에 기초한 말씀이 선포되는교회
28340 Highridge Rd, Rolling Hills Estates, CA 90274
T.(310)715-9902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O.C, 얼바인 지역

결혼교실, 사모교실, 부부교실, 아버지교실
www.GodFamily.com
www.CMFM.org
김철민 장로
CMF선교회
가정을 세우는 CMF Ministries
13463 1/2 Pumice St., Norwalk, CA 90650
T. (562) 483-0191 / (714) 493-0191

주일예배 (1부) 10:00am 수요돌파기도회 9:00pm
(2부) 1:30pm 금요온전철야예배 8:00pm
새벽예배 (월-토) 5:00am - (다음날) 7:00am
화요중보기도회 7:00pm 토요청년예배 7:00pm
앤드류 김 담임목사
UBM교회
3세대가 함께 성령안에서 자유롭게 예배하는교회
1531 S.Sinclair St., Anaheim, CA 92806
Tel: 714-634-8360, Cell:714-600-7700 www. ubmchurch.com

주일예배 오후 12:20
금요찬양예배 오후 8시:30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민승기 담임목사
갈보리새생명교회
행복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111 W. Las Palmas Drive, Fullerton, CA 92835
T.(714)615-9191, 995-5351 john_m9191@yahoo.com

1부예배 오전 7:30 금요찬양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30 장애인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영어장년부 오전 9:30, 11:30
한어대학청년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5:30(월-금)/6:00(토)
구봉주 담임목사
감사한인교회
예수믿고 변화되어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1부(한국어) 오전 8:00
2부(한국어) 오전11:00 말씀묵상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3부(영어) 오후1:30 한국학교(토) 오전 9:00
주일학교 오전11:00 Youth Orchestra (주일) 오후 1:30
토요새벽연합예배 오전 6:30
민경엽 담임목사
나침반교회
다시 복음으로, 담대하게 거침없이!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
T. (562)691-0691

1부예배 오전 8:00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11:00 유.초등부예배 오전 11:00
토요새벽예배 오전 6:00 셀가족 예배 매월 4째주 주일 오후 5:30분
대학청년예배 오전 11:00
오병익 담임목사
남가주 벧엘 교회
예수님이 살아계신다고 소문난 교회
1201 S. Beach Blvd. #110 La Habra, CA 90631
T.(562) 524-2037 bethelchurchca@gmail.com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20
영어예배(EC) 오전 9:30
청년예배 오후 1:30
백정우 담임목사
남가주동신교회
복음을 복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성도를 성도되게
2505 Yorba Linda Blvd. Fullerton, CA 92831
Tel. 714) 680-9556~7 www.dongshinchurch.com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예배 저녁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오전 6:00(토)
교회학교 주일 오전 11:00
이 일 담임목사
남가주순복음교회
예수 생명으로 열방을 살리는 예배공동체! ALL IN JESUS 예수께 모든 것을 가는 예수공동체!
10871 Western Ave., Stanton, CA 90680
T. (714) 952-0191 / www.socalfgc.com

주일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토요일) 오전 6:00
주일학교 주일오전 10:30
김성원 담임목사
남가주새소망교회
예배 성령 선교로 세움 받아 함께 달려가는 예수그리스도 공동체
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T. (562)674-3016, cell. (562)417-1800
www.newhopechurchla.com

1부예배 오전 9:00 교육부 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유아유치부, 유초등부
수요성령집회 오후 8:00 중고등부, 대학청년부
한국학교 주일 오후 1:30
왕상윤 담임목사
NEXT 사랑의교회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
11 Musick Honor Farm Rd, Irvine, CA 92618
T. (949) 829-0010

1부예배(EM) 주일 9:00am 금요찬양예배 8:00pm
2부예배(KM) 주일11:00am (매월 두번째 금)
교육부예배 주일 11:00am 새벽예배 화~금 5:30am
(유아유치부,유초등부,중고등부) 토 6:00am
안창훈 담임목사
늘푸른선교교회
복음 중심의 선교적 제자공동체
2216 E. South St., Anaheim, CA 92806
T. (714)808-9191 / www.missionways.org
mcc.office.email@gmail.com

주일예배 오전 11:3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5:30(화~금)
김일권 담임목사
www.dagamsachurch.org
다 감사교회
예수믿고 변화되어 세상을 축복하는교회
2000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988-3321, (562)896-1665

1부 예배 오전 8시 주일학교 오전 11시
2부 예배 오전 11시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시 30분
수요예배 오후 7시 30분
Youth/ College 주일오전 11시
안성복 담임목사
다우니제일 교회
행복한 동행!
7948 Quill Dr. Downey, CA 90242
T. (562) 861-1004 www.downeyfirstchurch.org

주일예배 1부 오전 8:30 주일학교 오전 10:30
2부 오전 10:30 새벽예배 월~금 새벽 5:30
3부 오후 1:00 (영어예배) 토 새벽 6:20
4부 오후 2:00 (젊은이예배)
고현종 담임목사
디사이플교회
예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제자공동체
17502 Daimler St., Irvine, CA 92614
T.(949)502-4923 / www.disciplecc.org

주일예배 오전 11시 30분
어린이예배 오전 11시 30분
찬양예배 오후 7시(수) 제자성서 오전 9시 30분(금)
중보기도 오후 3시(목) 새벽기도 오전 6시(화~토)
람학춘 담임목사
라구나힐스연합감리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24442 Moulton Parkway. Laguna Woods, CA 92637
T. (949)380-7777 / www.lagunaumc.org

1부예배 오전 8:45 새벽기도 오전 5:30 (월-금)
2부예배 오전 11:00 오전 6:00 (토)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9:00
이 서 담임목사
미주비전교회
역동적인 예배가 살아있는 비전공동체
2536 W. Woodland Dr., Anaheim, CA 92801
T. (714)821-9900,9901 / visioncc.org

1부예배 오전 7:15 성인 영어 예배 오전 9:15,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9:15 일본어 예배 오후 1:30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학교 오전 9:15,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2:00
김한요 담임목사
베델교회
역동적 복음, 능동적 선교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1부예배 오전 10:30 수요기도회 오후 8:00
2부예배 오후 12:3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영아,유아,주일학교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Youth,청년 오후 12:30
정기정 담임목사
샘물교회
샘물이 흘러나와 사람과 세상을 살리는 교회
11909 Courser Ave, La Mirada, CA 9063
T. (714)749-7770 www.saemmool.church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수요예배 오후 7:00
2부 오전 9:15 중고등부 오전 9:15, 11:30
3부 오전 11:30 한어부 오전11:30
4부 오후 2:00 KM대학청년부 오후 2:00
박신웅 담당목사
얼바인온누리교회
다음세대를 세우고 복음으로 다가서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949)261-9100 / vision.onnuri.org

1부예배 오전 7:30 EM 예배 오후 1:30(청년 영어)
2부예배 오전 9:30 새벽 예배 오전 5:30(월~금)
3부예배 오전 11:30 오전 6:00(토)
4부예배 오후 1:30(청년 한국어) 장년부 수요성령기도회 오후 7:30
FAME예배 오전 11:30 (장년 영어)
얼바인 침례 교회
하나님의 꿈이 있는 기쁨의 공동체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T. (949)857-9425 / www.irvinechurch.com

주일 인터넷 생방송듣기 오전 6:30
주일 예배 오전 11:30
목요 예배 오후7:30
토요 예배 오후 8:30 초등부 목요예배 오후 7:30
우대권 담임목사
영광빛복음교회
주의 권능, 치료의 광선을 행하고 알리는 교회
14515 Blaine Ave., Bellflower, CA 90706
T.(213) 291-5901 / (714) 833-2568 daekwon.org

1부 예배 오전 11:00 수요 예배 오후 7:30
2부 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 화~토 오전 6:00
E.M(Youth)오전11:00
김인철 담임목사
오렌지가나안장로교회
교회와 나는 하나이며 기쁨도 슬픔도 함께하는 운명공동체
940 W. Wilshire Ave. Santa Ana, CA 92707
T. (714)549-0121 www.myocpc.org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45 청년부예배 오후 2:00
3부찬양 오전 1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토)
수요예배 오후 7:30
남성수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워 초대교회 역사 이뤄가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crcoc.com

1부예배 오전 07:30 새벽예배 평일 오전 05:30
2부예배 오전 09:20 토요일 오전 06:00
3부예배 오후 11:30 금요성령예배 오후 08:00
4부예배 오후 2:00
한기홍 담임목사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상급받는교회 세계선교를 마무리짓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주일예배 오전 10:00 금요성경공부 오후 7:3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수요예배 오후 7:30
최성칠 담임목사
좋은나무교회
말씀을 배워 성령의 은혜를 받으며 예수님의 걸음을 따라가는 교회
15310 Alondra Blvd. La Mirada, CA 90638
www.goodtreefellowship.com

1부예배 오전 8:20 수요기도회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월~금)
청년예배 EM 오후 1:30 오전 6:00(토)
주혁로 담임목사
주님의빛교회
네가 나를 사랑하는냐
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0
T. (714)252-9191 / www. lordlight.org

1부 예배 오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2부 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화-금)
영어 예배 오전 10:00 오전 6:00(토)
유초등 예배 오전 11:30
임경남 담임목사
토기장이교회
회복과 회심을 경험하는 예배공동체
1937 W. Chapman Ave., Orange, CA 92868
T.(714)234-5338 / www.potterscc.com
E-mail : info@Potterscc.com

주일 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박 훈 담임목사
함께걷는교회
하나님, 성도, 이웃과 함께 걷는 교회
6102 Stanton Ave., Buena Park, CA 90621
T.(213)598-9130 breadhoon@hanmail.net

EM CHURCH

Sunday Celebration Services: 9 AM & 11 AM
Wednesday College Fellowship: 7 PM
Pastor Justin Kim
Bethel English Church
18700 Harvard Ave, Building C, Irvine, CA 9261
T. (949) 385-3051 / www.ocbethel.com

Sunday Services: 9 AM, 11 AM, and 2 PM
Youth Services:
Sundays at 11 AM, Fridays at 7:30 PM
Sunday School: Sundays at 11 AM
Pastors David Lee & Sung Hong
Cornerstone Church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www.cornerstonetv.com

Placentia Site Sunday Services: 10 AM
Artesia Site Sunday Services:
11:30 AM, 1:15 PM
Pastor Harold Kim
Christ Central of Southern California
Artesia: 11841 178th St, Artesia, CA 90701
Placentia: 500 Bradford Ave, Placentia, CA 92870
T. (562) 246-0363 / www.christcentralsc.com

EM Sunday Service: 12:00 PM
Children's & Youth Services: 10:30 AM
Friday Night Bible Study (Jr. High - Youg Adults): 7:30 PM
Pastor Joseph Suk
First Presbyterian Church of OC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1-2029 / www.oc1church.com

Sunday Service: 9:30 AM
Children's and Youth Services:
11:30 AM on Sundays, 8:00 PM on Fridays
Pastor Ronnie Park
Good Stewards Church
2701 S Woodgate Dr, West Covina, CA 91792
T. (626) 913-6611 / www. gsch.org

Sunday Services: 11:45 AM
Pastor Daevid Yoon
Inland Church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 inlandem.org

Sunday Service: 2 PM
Pastor Sungwon 'SJ' Jahng
LA Open Door Community Church
3281 W. 6th St., LA, CA 90020
T. (213) 986-8496/ www.laopendoor.church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美 남침례회서 20년간 성범죄 피해자 최소 700명"

현지 언론 추적 보도



미국 남침례회 본부. ⓒ남침례회 홈페이지

미국 최대 교단인 남침례회의 대형 성추문 사건이 알려지면서 큰 파장이 일고 있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 등 현지 언론이 11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텍사스주 대형 언론사 휴스턴 크로니클과 샌안토니오 익스프레스는 지난 몇 개월 동안 가해자를 찾고 사건에 대한 뉴스와 공공 기록 등을 수집해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왔다. 그 결과, 대부분의 성폭력 피해자들은 경찰과 접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실제 범죄자의 수가 더 많을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고 이 매체는 보도했다.

또 1998년부터 20년 간 약 380여 명의 목사와 봉사자 등으로부터 최소 700명이 넘는 피해자들이 성적인 학대를 당했으며 이들은 대부분 아이들이었고 일부는 낙태를 경험했다.

보도에 따르면 가해자들 중 220명은 이미 유죄 판결을 받은 상태다. 이들의 혐의는 아동 포르노 소지에서부터 아동 성폭력 등 다양했다. 220명 중 90명은 현재 복역 중이며, 100명은 성범죄자로 등록돼 있다고. 지난 2007년 샌안토니오에서 열린 총회에서 남침례회 지도자들은 성적인 비위로 고소된 사역자들의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성학대를 막기 위한 안건을 고려하기도 했다. 그러나 2008년 총회에 이 안건을 맡은 위원회는 "각 교회들이 남침례회에 성범죄자를 신고하도록 강요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며 이를 거부했었다고 한다.

일리노이주 휘튼대학교의 빌리그래함 센터 사무총장이자 작가인 에드 스테처 목사는 "침례교인들 사이에 성직 임명은 황량한 광야와 같다. 규제가 없고, 체계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자원들이 부족한 일부 소규모 교회의 경우, 잠재적 목회자에 대한 교인들의 평가 기준은 그가 '좋은 연설가'인지 아닌지 여부에 대한 평가 밖에 없다"고 말했다.

J.D. 그리어 남침례회 총회장은 자신의 트위터에 "밝혀진 사실로 인해 마음이 찢어진다. 기사에 나타난 학대는 순전한 악이다. 난 울고 있는 자들과 함께 울고 있는 수 많은 이들과 함께 한다"면서 "피해자의 안전이 교단의 명예보다 더 중요하다"고 밝혔다.

강혜진 기자

"한동대의 비전과 꿈을 짓밟은 국가인권위원회"

한동대-숭실대 권고안 규탄 집회 열려



청년과 학부모들이 '보편적 인권 보장하라'는 글이 작성된 피켓을 들고 있다.

한동대학교와 숭실대학교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의 권고를 규탄하는 집회가 12일 오후 서울 인권위 건물 앞에서 개최됐다.

이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한국교총) 이성재 교권강화국장은 "인권위의 결정은 정말 말도 안된다. 모든 법률 위에는 최상위 법인 헌법이 존재한다. 헌법 제31조엔 대한민국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보장된다고 돼 있다"며 "그런데 인권위는 헌법을 무시했다"고 했다.

이어 "한동대는 잘못한 일이 없다. 그런데 인권위가 무슨 염치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모르겠다. 인권위의 권고안이 일반화 되면 성 정체성에 혼돈이 온다. 절대적인 성 정체성이 무너지면 윤리와 도덕이 파괴되고 미래가 존재할 수 없다"며 인권위 권고안의 철회를 촉구했다.특히 이날 삭발을 감행한 한동대 제양규 교수는 "인권위를 반대하는 한동대 구성원의 마음을 표명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동대가 처음 설립 됐을 때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쓰임 받고자 하는 자'를 입학 조건으로 내걸었다. 교육부에서는 '신설대학교가 무슨 조건을 내거냐'고 했지만, 400명 모집에 4,800명이 지원했다. 학생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는 것"이라고 했다. 제 교수는 "그런데 인권위는 한동대가 성경적 말씀으로 가르치는 것이 인권 침해라고 주장한다"며 "우리나라 4년제 대학교 200개 중 100개가 기독교 기반 대학인데, (인권위의) 이러한 주장은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했다. 끝으로 그는 "한동대의 많은 교수들이 인권위로 인해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느낀다. 또 인권위가 비전과 꿈을 짓밟은 것에 대해 직권남용이요 업무방해라고 말한다. 때문에 인권위를 고소하려 한다"고 전했다.

숭실대 이상현 교수는 "숭실대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교단에 의해 관리되는 사립대학교다. 그런데 인권위가 기독교인을 채용하는 정관을 수정하라고 권고했다"며 "인권위는 기독교적 건학 이념 구현을 위한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했다. 헌법에 위배되는 권고를 한 것에 사죄하고 권고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또 이 교수는 "인권위는 학생의 강의실 대관을 허용했다가 여러 분쟁의 이유로 취소한 일에 대해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을 시정하라'고 주장했는데, 강의실 대관을 신청한 학생은 자신은 동성애자가 아니라고 하는 여학생이었다. 이건 말이 안 된다"고 했다. 이밖에 나쁜 인권조례 폐지 대표, 전국학부모교육시민단체연합(전학연) 대표,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 상임회장, 전남대 교수, 한국성과학연구협회 미국 변호사,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 운영위원장 등이 연이어 발언했다.

김신의 기자

어떤 통일을 할 것인가: 독일에게서 배운다



이 정 훈 교수
울산대 법학과

"핵에 반대한다 - 원전을 폐쇄하라", "녹색의 환경을 보호하라 - 대규모 토목사업에 무조건 반대한다", "적의 전술 핵미사일에 대항하여 군비증강이나 국가안보를 강화하기보다는 우리가 먼저 군축이나 전력 감축을 통해 평화를 추구하자."

이미 우리에게 익숙해진 이러한 선동정치의 구호들은 2018년 한국만의 것이 아니었다. 1970년대 혼란한 서독에서 지식인을 중심으로 한 자칭 양심세력, 즉 "뉴-레프트" 운동을 이끌었던 세력의 구호이기도 했다. 당시 서독 좌파의 녹색운동은 시민들에게 상당한 인기를 끌었는데 이들은 늘 동독과 소련을 찬탄하고 서독의 보수 세력과 미국을 비판했다. 동독이 붕괴된 후 낙후된 공산사회가 석탄보다 환경오염에 더 큰 타격을 주는 갈탄을 사용해서 서독에 비해 동독지역의 환경오염이 심각하다는 진실이 드러났다. 동독의 공장들은 기계들이 구식인데다 생산을 우선시해서 환경 보호에는 관심 자체가 없었다.

소위 녹색운동은 환경오염의 피해가 가장 적었던 원자력발전을 극단적으로 반대하면서도 오염의 주범인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대안 제시에는 관심도 없었다. 그들의 주장이 현실이 되려면 산업사회 독일의 시계를 거꾸로 돌려 농경사회였던 목가적 독일로 돌아가야만 했다. 그들은 1983년 비폭력, 환경보존, 일방적 군축, 사회개혁의 4대 정책기조를 발표하고 대중의 인기를 끌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이것은 2018년 한국의 정부와 여당, 그리고 그 열성 지지자들에 관한 설명이 아니라 독일 정치사의 한 장면이다.

독일과 한국을 독자들이 착각할 정도로 선동정치의 양상은 유사하다. 이들은 평화를 외치면서도 미국과 서독의 보수파를 공격하기 위한 폭력행사나 테러리스트들에 대해서는 공감을 표시했다. "내로남불"은 한국의 좌파 선동정치에만 적용되는 특수사례가 아니다. 또한 서독에서도 좌파들은 "법치주의"를 완고한 도덕주의로 비난하면서 개혁의 대상이라고 외쳤다.

1980년에서 1983년 선동된 서독 국민들은 "평화운동"이라는 이름으로 소련의 전술핵 배치에 대항한 NATO의 군사정책을 극렬하게 반대했다. 이 운동의 지지자들은 평화를 외치면서도 1983년 소련이 비무장 민항기인 한국의 대한항공 여객기를 격추시켰을 때 오히려 소련을 옹호하기도 했다. 선동가들은 실제와는 관련 없는 거짓뉴스와 단편적인 사실들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심어주고 동독과 소련이 아닌 미국과 레이건 대통령을 적으로 만들어 나갔다.

1968년에서 1970년 사이에는 소련의 지원을 받아 "적군파"라는 테러리스트들이 길러졌고, 이들은 베를린의 고등법원장 귄터 폰 드렝크만을 살해했다. 보수정치인을 납치해 인질극을 벌이기도 했다. 현재의 독일을 생각하면서, "독일에서 설마?"라고 독자들은 의아해 하겠지만 모두 사실이다.

그렇다면 레이건과 강한 동맹으로 소련과 공산주의 동독의 붕괴를 이끌어 내고 통일을 실현한 독일의 정치적 힘은 어디에서 나온 것이었을까? 이는 바로 베버가 말한 윤리, 즉 "책임의 윤리"를 신봉하는 법치와 질서를 강조하는 세력, 즉 국가적 위기의 순간마다 선동에 흔들리거나 인기에 영합하지 않고 중심을 잡아주는 도덕적 보수주의 세력의 노력과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독일의 좌파들이 모두 저급했던 것은 아니다. 헬무트 콜의 보수집권 직전 통일의 기반을 다진 사민당의 헬무트 슈미트 총리는 건전한 좌파의 귀감이다. 소련이 전술핵으로 유럽의 안보를 위협할 때 그는 미국에게 전술핵미사일 배치를 요청하는 중대한 결정으로 독일의 안보를 지켰다.

소련이 동독과 동유럽에 중거리 핵미사일을 일방적으로 전개했을 때 슈미트 총리는 좌파들의 선동으로 "거짓 평화"에 속고 있었던 국민들의 포퓰리즘에 편승하지 않았다. 그는 전술핵에 대해 치밀하게 연구하고 미국을 설득했다. 서독과 서유럽에 배치된 미국의 전술핵은 그의 노력과 설득에 기초한 것이었다. 그의 정치의식을 알 수 있는 발언들을 보면 매우 감동적이다.

전통을 지킨다는 것은 타고남은 재를 끌어안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횃불을 밝혀두고 있는 것이다. 그 횃불은 인간을 사랑하고 모든 사람의 존엄성을 존중하기 위한 것이다. 그 횃불은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라고 하는 우리 기본법상의 지고한 가치기준을 밝히기 위한 것이다. - 1978년-

자유, 정의 및 인간의 존엄성 등은 독일-미국간의 우의와 연대의 근간을 이루는 공통의 가치요 원칙이다. 우리들의 맹방이기 때문에 같은 이념을 갖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우리가 같은 이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맹방이요, 같은 도덕기준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맹방인 것이다. - 1980년-

사실 오늘날 독일의 통일과 번영을 일군 일등 공신은 역사 속에서 전승된 "책임윤리"라고 할 수 있다. 책임윤리에 기초한 정치란 소명으로써의 정치를 의미하며 이러한 책임윤리는 종교개혁의 전통과 무관하지 않다. 헬무트 슈미트와 같은 합리적인 좌파 지도자의 등장이 가능했던 것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초한 확고한 인권의식,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타협 없는 자유수호의 의지가 독일 정치사에 존재했기 때문이다.

슈미트와 같은 건전한 '진보' 지도자는 도덕적 가치에 기반 한 책임 윤리의 정치를 실현하겠다는 강력한 "보수적 전통"이 없었다면 나올 수 없었다. 보수적 가치는 도덕적 가치를 의미하고 책임 있게 이 가치를 실현하려는 역사적 윤리의식이 보수주의의 정신적 근간이다. 이러한 정치사적 전통 속에서 다소 급진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와 같은 기본가치를 존중하는 건전한 '진보' 세력의 등장도 가능해 진다.

한 세력의 독점적 지위가 아니라 기본 가치에 동의하지만 구체적 실현 방안에서 의견 차이를 보이는 보수와 진보의 견제와 균형은 선진적인 "법치주의" 안에서만 가능하다. 법의 역사를 통해 천박한 중우정치와 포퓰리즘을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선언했던 독일정치의 번영은 우연이 아닌 것이다. 한국도 법치주의의 기초 안에서 도덕적 가치를 우선하는 진정한 보수주의가 성장해야 한다. 천박한 "기회주의"나 "물질만능주의"는 보수주의라고 말할 수 없다.

책임윤리에 기반한 정치의식을 바탕으로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를 제일 가치로 삼는 진정한 보수 세력의 등장은 "북한의 참혹한 인권상황"에 눈감으면서도 인권과 평화를 외치는 선동정치를 "진보"라고 부르는 한국의 저급한 정치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또한 선동을 일삼는 무책임한 급진주의자가 아니라 국가의 미래와 안보를 위해 경쟁하고 협력할 수 있는 "진보"세력의 출현도 도덕적 보수의 등장이 없으면 불가능하다는 것이 독일의 정치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진실이다.

유사 이래 가장 강력한 포퓰리즘으로 경제와 안보의 경고음 속에서도 질주를 멈추지 않는 폭주기관차와 같은 현재의 한국이 패망의 길을 가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 세대에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의 향유가 마지막이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책임윤리에 기초한 성숙한 보수주의는 지금 이 순간 시작되어야만 한다.

진상



구 봉 주 목사
감사한인교회

진상은 임금님께 올려지는 수라상, 음식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 단어가 다른 사람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사람을 일컫는 말로 사용됩니다. 이렇게 단어는 시대에 따라 뜻이 다르게 사용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부창부수라는 사자성어가 비슷한 경우입니다. 원래 부창부수는 긍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말입니다. 한자어 그대로 풀이하면, "남편이 주장하고 아내가 따라간다"라는 뜻으로 "부부가 서로 마음이 하나가 된다"는 뜻의 사자성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부부는 모든 면에서 결국 닮는다"는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추측컨대, 진상도 어쩌면 "왕의 수라상처럼 풍성하다 좋다"는 긍정적 의미에서 "왕노릇 하려한다. 왕처럼 자기 멋대로 하려 한다"는 부정적인 뜻으로 바뀌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왕족도 아니고, 왕제도가 없는 시대에 왕노릇 한다면, 여간 성가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상황에 맞지 않는 왕노릇"하면, 생각나는 3가지 한자성어가 있습니다. 적반하장, 안하무인, 배은망덕입니다. 적반하장은 자신이 잘못해놓고 도리어 화를 내는 태도입니다.

최근에 그랜드캐년에서 안전사고가 있었습니다. 관광객이 들어가지 말아야 할 위험구역에 들어가 셀카를 찍다가 추락하여 크게 다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로 여행사를 고소한 사실이 알려져, "옳다 옳지 않다" 인터넷 상에서 의견이 분분하다고 합니다. 안하무인은 다른 사람의 생각과 감정은 전혀 의식하지 않고 자신이 하고 싶은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현대어로 표현하면, 극단적인 이기주의자 혹은 개인주의자입니다.

배은망덕은 은혜를 입고도 크게 감사하지 않거나 오히려 배반하는 경우입니다. 분명히 은혜를 받고 도움을 받았는데, 그다지 고마워하지 않아 하는 경우를 봅니다.

사람이 아주 조금이라도 은혜를 입고 도움을 받았으면, 태도가 달라지고 은혜를 갚고 싶어하는 것이 인지상정인데,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실제로 우리 주위에 많습니다.

크리스천은 적반하장이 아니라, 잘못을 인정합니다. 크리스천은 안하무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자신보다 더 신경쓰고 배려합니다. 크리스천은 배은망덕이 아니라,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고, 반드시 은혜를 갚습니다.

담임목사 청빙

두바이 한인교회 담임 목사님을 모십니다.
두바이 한인교회는 '이방의 빛이 되리니'를 사명으로 하는 선교적 교회입니다.

1. 지원자격
- 연령 : 40세 전후
- 학력 : 정규대학 졸업 및 신학대학원 (M.Div) 졸업 또는 이상 소지자
- 경력 : 목사 안수 후 담임 목사 또는 부목사, 목회 경력 5년 이상자(교단 : 제한없음)

2. 제출 서류
- 이력서 ····· 1부
- 자기 및 사모 소개서 ····· 각 1부
- 목회계획서 ····· 1부
- 개인 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서 ····· 1부
- 추천서 (2명이 각 1부씩 제출) (교수 또는 목회자 추천, 및 추천인의 인적사항, 연락처 필히 기재)
  추천인이 직접 제출 ····· 2부
- 가족관계증명서 ····· 1부
- 졸업증명서 (대학교, 신학대학원) ····· 1부
- 목사안수증명서 ····· 1부
- 설교 동영상 파일 1~2편(최근 1년 이내)

3. 서류 제출 기한 3월 15일(금)까지

4. 제출 방법 : 두바이 한인 교회 홈페이지에서
(http://www.dubaikoreanchurch.org)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받아 작성 후 모든 제출서류와 함께 이메일 dubaidkc@gmail.com 으로 송부

5. 참고사항
- 본 교회 양식만 접수 받습니다. 서류미비시 심사에서 제외됩니다.
- 제출된 서류는 비밀을 보장하며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1차 서류 심사 후 개별 통지 합니다.
- 제출된 서류에 허위가 있을 경우 결정 후에도 취소 됩니다.

두바이 한인교회
Dubai korean church

Youth Minister
Beautiful Church

- **Categories** : Youth Pastor
- **Denominations** : Baptist-SBC
- **Job Type** : Full-Time

Job Description

The Youth Pastor is responsible for providing leadership, oversight and implementation of the youth ministry at Beautiful Church, which includes teens from thirteen years old to the age of eighteen. The Youth Pastor will work with the Director of Education Ministries m (DEM) for the goal of overseeing all ministries and events designed with the purpose of reaching and discipling teenagers in Christ.

Application Procedures

Interested and qualified individuals should send a cover letter, resume, sample message (MP3 or MP4), Personal Testimony, Calling to Ministry, 2 References Letter (One from Former Ministry) along with salary expectations electronically to beautifulchurch@hotmail.com. Candidates who appear to be a good match for both Beautiful Church and this position from a preliminary review of qualifications and experience will be contacted for interviews and further candidating steps.

자세한 사항은 웹사이트 기독일보 목회자 청빙 참고
www.kr.christianitydaily.com

Beautiful Church
1717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 626-810-3455

전도사 청빙

뉴저지 은혜와 사랑교회
(미국장로교, 담임 : 소기범 목사)에서
아동부 전도사님을 청빙합니다.

- 지원자격 : M.Div. 학위 소지 혹은 재학 중인 분
- 급여 : $1,200/월
- 사역 내용 : 아동부 목회
- 제출서류 : 이력서, 자기소개서
- 보내실곳 : jcworld21@hotmail.com
- 문의 : 목회부장 (201-522-3011)
- www.gracelovechurch.org

은혜와 사랑교회
GRACE & LOVE CHURCH

55 Magnolia Avenue Tenafly, NJ 07670
Tel:(201)567-3535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Classified AD

훼밀리자동차 그룹
www.alexkimntrading.com
대표전화 323.737.5900
David Kim 213.703.7077

중고차의 황제
출장방문 가능, 일요일도 오픈
933 S.Western Ave. LA, CA 90006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골드핑거
T.213.386.5858
직접재단/직접재봉/남녀맞춤/명품 옷수선
975 S.Vermont Ave. #102, Los Angeles,, CA 90006
Master Tailor 김병호

CD Printing
CD전문 주님미디어입니다.
교회설교, 부흥회 시디 앨범, 신학교 강의 오디오북
소량, 대량 모두 제작이 가능합니다.
1,000장 이상 주문시
신년맞이 이벤트
(프린트CD + CD봉투 + 라벨)포함입니다.
1,000장 $350
3,000장 $950 (디자인Free)
그밖의 다양한 컨텐츠 제작
문의 323.265.0244 junimmedia@gmail.com www.junimmedia.com

ORION AUTO SERVICE
•SMOG •INSPECTION
•TUNE-UP •BRAKE
•FUEL INJECTION ETC.
2217 S. Normandie Ave.
Los Angeles, CA 90007
Tel.(323)732-4669
VALERO 가스 스테이션 옆에 있습니다

아이넥스 바디샵
자동차 사고...
더 빠르고 완벽한 복원을 원하신다면
이제 아이 넥스 입니다.
최고의 기술과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inex AUTO COLLISION CENTER
Quality Body Work & Life Time Warranty
2811 Leeward Ave Los Angeles, CA 90005
E-Mail : inexcollisioncenter@gmail.com
24시간 사고발생시 연락주시면 언제든지 달려갑니다.
213.383.1230
FREE ESTIMATE · TOWING

헤어컷 특강
미용을 배워 선교하는데 사용하실 분들을 위해 특강을 엽니다.
- 대상 : 전도와 선교를 위해 사용하실 분 (현재 프로 미용인도 OK)
- 회비 : 월 $10
- 강사경력 : 전 국가대표 선수권자
- 문의 : 213.392.2323

9가 로데오 갤러리 몰
오페라 하우스 베이커리
교회행사용
CAKE.빵 주문시 SALE
케익 및 빵 단체주문 환영
T.(213)384-1999 operahousebakery@gmail.com
833 S. Western Ave. #38, LA, CA 90005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삼성통운 SAMSUNG SHIPPING
www.easy2424.com
한국식 포장이사 가능
귀국·시내·타주이사·차량운송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무료전화 (877)580-2424
(310)538-3333
18118 S. Broadway St #B., Gardena, CA90248

프로지 PRO-Z
혈당수치가 내려가면
행복지수가 올라갑니다
식후 혈당 억제를 도와 혈당 걱정 없는 인생, 이제 프로지로 활짝 웃으세요.
아시나요?
당뇨 치료, 당뇨의 근본적 개선을 위한 첫걸음
당화혈색소(HbA1c) 1%
줄이기에서 시작됩니다
혈당수치를 조절한다고 치료되는 것이 아닙니다.
당화혈색소(HbA1c) 조절목표는 6.5%
당화혈색소를 1%만 줄여도
43%(하지절단) 37%(미세혈관합병증)등이 줄어듭니다
송문기 박사, 그는 누구인가?
* 국가대표 재미과학자 송문기 박사
* 40년간 당뇨병, 비만 그리고 난치병 연구
* UCLA학대 생화학 분야 연구교수
* 미 연방재향군인병원 개발센터 수석 연구원등
1병 $69+Tax
3병 $180+Tax
6병 $350+Tax
핵심은 아연의 흡수
(CHP 특허물질 아연의 흡수율이 획기적으로 증가)
문의전화 213.434.1170
PRO-Z USA Inc. 미국 공식 판매처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www.prozusa.com / prozusa1@gmail.com

GAIA CODYCEPS
가이아 동충하초
겨울에는 곤충으로 있다가 여름에는 버섯으로 피어난다하여 동충하초(冬蟲夏草)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등소평이 94세까지 장수하기 위해 가장 즐겨먹던 음식.
다른 성분은 일체 넣지않은 100% 동충하초 분말
한국 가이아 팜에서 재배한 유기농 동충하초를 미국으로 직송
코디세핀이 풍부한 21세기 천연항생제
한국 식약처 안전 검사필 (No. 2013-0372219)
동충하초의 핵심성분인 코디세핀은 항암, 혈당조절, 두뇌세포 활성화에 탁월한 효과
현미
면역세포증식
치매예방
당뇨
성기능 증진
한병 분말 100 g
$130+Tax
가이아 동충하초 맛있게 드시는 방법!
물과 함께 동충하초 분말 1스푼을 아침, 저녁으로 공복에 먹습니다.
두유나 우유에 타서 먹습니다. 오거트에 1티스푼 정도 섞어서 먹습니다.
밥할 때 넣어서 밥4인분 기준 2스푼을 지어 먹습니다. 각종 요리에 뿌려서 먹습니다.

가이아 동충하초의 성능
01 항암효과 및 면역력 향상
동충하초 하면 항암 성분을 빼놓을 수가 없죠! 많은 분들이 '동충하초 효능'하면 항암효과를 많이들 떠올리시잖아요. 명성에 걸맞게 동충하초는 높은 종양 억제율의 항암성분으로 항암 효능이 뛰어나 각종 암의 치료와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항암 효능을 나타내는 성분은 동충하초의 성장 도중에 만들어 진다고 하는데요. 세균이나 바이러스 감염을 막는 작용을 합니다. 암세포 자체의 억제와 번식 속도를 억제하는 효과를 의미합니다.
환절기에 감기와 같은 환절기 질환을 예방 하는 '면역력' 향상에 큰 효능이 있습니다.

02 혈당 조절
동충하초는 혈당을 안정적으로 조절 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췌장기능을 강화 시켜주기 때문에 인슐린 분비를 촉진시켜 혈당관리에 효과적이고, 당뇨병을 앓고 계시는 환자분들의 혈당 수치 조절에 아주 큰 도움이 되는 효능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데에 효과가 커서 더욱 큰 도움이 됩니다.

03 혈압조절 및 생식기 기능 강화
동충하초에는 칼륨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칼륨 성분은 혈압을 정상화 시키는 데에 효능이 뛰어나 고혈압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에게도 좋습니다.
또한 비타민 E도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 노화방지에 탁월하고 생식기 기능 향상 및 강화에도 효능이 있다고 합니다. 특히 남성분들이 정력 강화 하시기 위해 많은 분들이 동충하초를 복용 하고 계십니다.

04 간 기능 향상 및 회복
동충하초에는 다당체, 만니톨, 에르고르테롤 과 같은 다른 식품에서 좀처럼 보기 힘든 성분들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 간을 회복시키는 효능이 있습니다.
꾸준히 복용하시면 간의 손상을 막고 각종 간 질환을 예방 하는데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만니톨 성분은 혈관의 탄력을 높여주어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간 뿐만 아니라 순환기 계통의 질병 예방에도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05 다이어트 효과
다이어트에도 동충하초가 도움이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동충하초가 몸 속에 있는 중성 지방을 없애주는 데에 매우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비만은 성인병의 근원 이기도 하죠? 성인병 예방과 비만관리에도 큰 효능이 있겠네요.
비만 환자분들과 여성분들에겐 이처럼 큰 희소식이 없네요!

06 두뇌세포 활성화 기능
두뇌세포를 활성화하여 치매예방, 마약중독 후유증, 신경안정, 기억력 증진에 효능이 있습니다.

구입문의 213.434.1170
PRO-Z USA Inc. 프로지 유에스에이
prozusa1@gmail.com
621 S. Virgil Ave. #260., LA, CA 90005

성경 속 '첫 질문'의 주인공, 하나님일까 아담일까

이종구 목사의 〈질문 있습니까?〉



질문 있습니까?
이종구 | 쿰란

"인생의 근원에 대한 질문 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곧 그 답을 모르는 채 살아가는 삶인데, 그런 삶이 야말로 헛되고 무가치한 삶일 것은 당연하다. … 끝없이 의심하는 자만이 진지하게 질문할 수 있다. 그리고 진지하게 질문하는 자만이 명쾌한 답을 얻을 수 있다."

〈질문 있습니까〉에서는 성경 속에 나오는 질문에 저자가 답하는 책이다. 하나님의 질문은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등 6가지, 사람의 질문은 '어느 때까지리이까?',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등 5가지이다.

성경에 나오는 첫 질문은 뜻밖에도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하셨다. 저자는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사람 사이의 관계에 있어 궁금한 쪽은 당연히 피조물인 사람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인류 역사에서 처음 질문을 한 쪽은 사람이 아니었다(창 3:9)"며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인 사람에게 먼저 질문하신 것이 야말로 충격적인 사건이다.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기록했다.

물론 인류의 타락 전에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따로 질문이 필요하지 않았다. 저자는 묻는다. "거룩한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형상을 소유한 사람, 이 두 존재 사이에 무슨 질문이 필요했겠는가? 또 질문이 없는데 무슨 답변이 있었겠는가?"

비록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였지만,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을 소유한 존재였으므로 그 무엇도 질문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다. 하나님도 당신의 거룩한 형상을 소유한 사람에게 전혀 질문할 필요가 없었다.

그러나 피조물인 아담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은 깨어지고, 하나님과의 연합은 더 이상 불가능하게 됐다. 아담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옴으로써 인간은 하나님과 분리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은 아담에게 비로소 질문하셨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담의 소재를 몰라서 묻는 것이 물론 아니고, 그의 실존에 대해 묻는 것이다. 아담이 있어야 했던,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자리에 있지 않았기에 하나님은 절규하듯 물으셔야 했다고 저자는 말한다.

그러면서 독자들에게 묻는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지금 또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가를 바로 알고, 또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바로 아는 것, 그것이 신앙의 첫걸음이다. 그 자리는 바로 '코람 데오(Coram Deo)', 즉 하나님 앞에서다.

이 '코람 데오'의 신앙이란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는 신앙,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신앙,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이다. "신앙은 무엇인가? 결단이다. 그 결단이란 가장 가치 있는 단 하나의 선택을 위해, 다른 모든 것을 포기함을 말한다." 이 외에도 이 책에서는 하나님과 사람의 질문들을 통해 성경 곳곳을 산책하며 우리 신앙을 점검하고 있다.

저자는 "우리의 의심에도, 그리고 우리의 질문에도 다 때가 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의심하고 또 질문할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며 "우리 인생에서도 삶의 시간이 끝나기 전에 질문하는 자만이 비로소 그 답을 얻을 수 있다. 그렇다. 내일은 너무 늦다. 바로 오늘이 의심할 시간, 질문할 시간"이라고 말했다. 부제는 '오래오래 빛으로 가슴에 남아 바른 신앙의 길을 가도록 인도하는 책'.

저자는 방송사 아나운서와 일간지 기자를 거쳐 신학을 공부했고, 캐나다 밴쿠버에서 두 교회를 개척한 뒤 현재 은퇴해 집필에 전념하고 있다. 저서로 〈인생은 사랑하기에도 짧은 시간입니다〉와 〈성경 속 여백 여행〉, 〈여호와 나의 목자〉 등이 있다. 이대웅 기자

프랜시스 쉐퍼가 분석한 서구 사상과 문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프랜시스 쉐퍼
생명의 말씀사

인간에게 닥친 수많은 위기는 성경적 진리에서 떠나 인본주의에 기초한 세계관을 따른 필연적 결과다. 그렇다면 현대의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제시한 계시인 성경, 즉 하나님과 인간과 자연에 대하여 참된 것을 말씀해 준다는 기독교 진리로 복귀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야 할 유일한 길이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는 40여 년 이상 이어진 기독교 원리에 대한 폭넓은 조사와 집중적인 철학적 고구(考究)가 절정에 달한 순간 나온 기념비적인 작품이다. 프랜시스 쉐퍼 박사는 오랫동안 서구 문화의 쇠퇴 과정과 결말을 숙고하면서, 바르지 못한 세계관으로 인해 현대의 인류가 뿌리를 상실했을 뿐만 아니라 가야 할 방향도 잃어 버렸다는 결론을 얻었다. 대부분의 미래학자나 운명론자 또는 예언자들과는 달리, 그는 문제를 정확하게 지적하고 그 문제들의 기원을 밝히는 한편, 미래에 대한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제안을 체계적으로 공언한다.

쉐퍼 박사는 고대 로마로부터 중세를 거쳐 르네상스와 종교 개혁 시대를 지나 계몽주의를 넘어 현대에 이르기까지 서구 세계 문화 발전의 각 단계를 면밀히 검토하고, 신학, 철학, 역사, 과학, 사회학 및 예술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며 시대를 지배하는 신념에 대한 인간의 사고와 행동의 원인과 영향을 분석한다. 동시에 다각적이고도 깊은 기독교적 대응에 관한 식견으로 현대 사회의 유감스러운 사태들의 이유를 고찰하고 실행 가능한 대안을 제시한다. 그 해결책은 바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들이고, 거기에 나타난 가치관을 총체적으로 수긍하고, 그 기독교적 절대 기준에 따라 사는 것이다. 이 책은 신학적 자유주의의 풍랑이 밀려들어 오면서 전대미문의 혼란을 예기하게 했던 쉐퍼 생전의 시대에는 물론 현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변치 않는 기독교 진리와 세계관에 힘입어 보다 나은 구체적인 변화가 있을 것을 기대하게 만드는 역작이다.

미국의 복음주의 선교사이자 신학자, 장로교 목사이자 강연가, 철학가이자 저자인 프랜시스 쉐퍼는 1912년 필라델피아의 한 유서 깊은 루터교 가정에서 태어났다. 그는 오늘날의 사회 병리 현상의 주원인이 진리는 절대적이 아니라 상대적이라고 여기는 사상에 있다고 보고, 20여 권에 달하는 방대한 저서를 통해 상대적 진리관이 사회 각 분야에서 초래한 결과들과 대안들을 기술했다. 노형구 기자

설교는 인문학이다



설교는 인문학이다
김도인 | 두란노

치열한 설교 연구가이자 '아트설교연구원' 대표인 저자가 목회자의 설교 갈증을 시원하게 풀어 줄 책을 들고 왔다. 설교를 오래 혹은 많이 했다고 실력이 정비례할까?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다. 설교자는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은 물론, 청중을 이해해야 진리를 제대로 전할 수 있다. 그러나 많은 설교자가 신학에만 머물러 있다. 하지만 청중과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 설교자는 끊임없이 그릇을 키워야 한다. 특히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 인문학을 공부해야 한다. 또 청중과 공감하고 소통하기 위해 문학적인 요소, 즉 글의 논리성, 구성 능력, 탁월한 문장력도 중시해야 한다.

설교에서 신학이 몸이라면 인문학은 옷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설교에 인문학의 옷을 입혀야 한다고 하면 혹자는 항변할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는 것 아닌가? 말씀만으로 충분하다. 설교에 인문학적 요소를 입히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반증일 뿐이다." 그러나 예수님도 설교하실 때 설득의 기법인 수사학을 사용하셨다. 청중과 소통하기 위해 비유를 사용하신 것이다. 누구보다 인간을 이해하셨고, 핵심을 찌르는 설명을 하셨으며, 설득을 위한 논증을 펼치셨다. 이것이 바로 인문학이다.

중세시대는 영적인 요소만으로도 설득이 충분했다. 하지만 문화가 세상을 주도하는 21세기는 영적인 요소만으로 복음을 전하기가 턱없이 힘들다. 그들에게 다가가려면 그들에게 익숙한 언어 표현법, 즉 인문학적인 요소를 사용해야 한다.

설교 철학부터 인문학적 설교의 필요성, 인문학과 인본주의의 차이점, 설교의 전달 과정, 구성 방법 등 풍성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인문학적 훈련을 함으로써 단단하고 깊은 설교자가 되는 비법을 소개하는 이 책은 기존 설교 스타일에 변화를 주어 청중과 소통하고 싶은 목회자, 신학과 인문학의 두 날개로 비상하고 싶은 목회자에게 큰 도움을 줄 것이다. 노형구 기자

예수는 왜 나쁜 행동을?



나쁜 예수
마크 L. 스트라우스
예수전도단

많은 사람이 예수를 좋아한다. 어떤 이는 4대 성인 중의 한 명으로, 또 어떤 이는 평화를 사랑한 자로 그를 생각한다. 하지만 복음서가 제시하는 진짜 예수의 모습은 무엇인가? 복음서에서 예수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장사하는 자들을 다 쫓아냈다. 무화과나무를 저주해서 죽게 하고, 애꿎은 돼지 떼의 죽음에도 예수가 관련된 것처럼 보인다. 이런 정황들로 미루어 볼 때, 예수는 진정 나쁜(?) 사람으로 보인다.

예수의 이런 행동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과연 예수는 왜 그런 나쁜 행동들을 했을까? 표면적으로 나쁘게 보이는 예수의 행동에는 어떤 의미가 숨어 있을까? 혹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는 정말 나쁜 예수였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이 책에 있다. 이제까지 예수를 나쁘다고 생각해왔다면, 성경에 나오는 예수의 행동들이 이해가 안 된다면 이 책은 당신을 위한 책이다.

노형구 기자

프린스턴 바이블 유니버시티
입학/편입생 모집

프린스턴 바이블 유니버시티(PRINCETON BIBLE UNIVERSITY)에서 겨울학기 학생을 모집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소명을 받아 그의 사역자로 헌신하실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모 집 과 정

◈학사 과정
신학사
선교학사
기독상담학사
기독교육학사

◈석사 과정
교역학석사
신학석사
선교학사
기독상담학사
기독교육학사

◈박사 과정
신학박사
선교학박사
기독상담학철학박사
기독교육철학박사

등록상담전화

PRINCETON BIBLE UNIVERSITY IN AMERICA
프린스턴바이블유니버시티
520 S. Lafayette Park Pl. #520 L.A, CA 90057 | TEL: 310-678-6836

미주크리스천신학대학교(원)
신입생 | 편입생 모집

참,(진리의 길) 앎,(학문의 길) 삶,(십자가의 길)

신학대학교	신학과(B.A) | 126학점
신학대학원	■ M.Div 교역학 석사과정 | 96학점 ■ M.A 석사과정 | 48학점 ■ Th.M 신학 석사과정 | 48학점 ■ D.Min 목회학 박사과정 | 48학점 ■ Th.D 신학 박사과정 | 56학점

본교 지원시 특전
1) 개혁 장로회 한미연합총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대학(BA)과정이나 교역학 석사(M.DIV) 과정 지원자는 첫 등록학기에 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본교는 미국 신학교 협의회에 가입된 회원 학교입니다. 서로 학점 교환이 가능합니다.

입학상담:213-272-6031

미주크리스천신학대학교(원)
CHRISTIAN THEOLOGICAL UNIVERSITY IN AMERICA
276 S. Rampart Blvd. Los Angeles, CA 90057 | TEL:213-272-6031

"'강단'의 위기? 결국은 목회자들 '글'의 위기"

[인터뷰] 아트설교연구원 김도인 목사(上)

'이렇게 목회해서 뭐하나' 하는 생각에 10년 독서 결심
10년간 5천권 이상 읽어
세상은 글쓰기에 열광하나 교회는 글쓰기 관심 없어
교회, 세상과 격차가 너무 커



아트설교연구원 대표 김도인 목사(주담교회) . 그는 "문제는 세상과 격차가 너무 크다는 것"이라며 "세상은 글쓰기에 열광하느 교회나 신학교는 이에 관심이 없다. 세상은 다 글로 가는데, 우리는 말에 묶에 있다."고 말한다.

"21세기는 콘텐츠가 중심인 시대다. 문학, 영화, 드라마도 콘텐츠 싸움을 치열하게 하고 있다. 이는 설교에서도 마찬가지다. 설교 콘텐츠가 설교의 핵심이다."

아트설교연구원에서 목회자들에게 글쓰기를 가르치고 있는 김도인 목사(주담교회)는 지난해 〈설교는 글쓰기다〉에 이어 〈설교를 통해 배운다(이상 CLC)〉, 〈설교는 인문학이다(두란노)〉를 잇따라 펴냈다.

저자는 설교를 바른 성경 해석을 바탕으로 한 '청중과의 소통'으로 정의한다. 이를 위해 설교는 청중들의 귀에 들려야 하고, 본문에서 메시지를 추출해 설교 전체를 하나의 이야기로 만들어 내야 한다고 말한다. 저자는 설교자가 왜 글을 써야 하는지, 그리고 왜 인문학을 비롯한 각종 분야의 책을 읽어야 하는지를 열정적으로 설득했다.

-아트설교연구원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올해로 9년째 매주 두 차례 서울에서, 한 차례 대구에서 글쓰기 모임을 하면서 함께 실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책을 10년 읽는 것보다, 글을 1년 쓰는 것이 더 빠른 설교의 발전을 가져온다고 봅니다.

요즘 성장하는 교회가 많지 않지만, 연구원 회원 교회들은 작지만 성장하고 있습니다. 글을 쓰다 보면 청중과 소통할 수 있게 되고, 강단에 설 때고 자신감이 생깁니다. 대구에서 20-30명 정도 목회하시던 분이 5년간 배우면서 설교만으로 성도가 100여명으로 늘었습니다.

아트설교연구원에서는 직접 글을 쓰게 하고, 제가 첨삭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저도 글을 썼던 사람은 아닙니다. 하지만 매일 책을 읽고, 1,200권 정도 읽다 보니 3년쯤 지났을 때 글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연구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서점에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글을 씁니다. 연구원 회원들도 처음에는 글을 못 썼지만, 2-3년이 지나면 한 권 정도를 쓸 수 있습니다. 저도 3년 전부터 글을 쓰기 시작해 지금까지 책 7권을 냈고, 올해 12권을 쓰는 것이 목표입니다. 지금은 습관과 기도에 대해 쓰고 있고, 기쁨에 대해서도 써 보고 싶습니다."

-책을 읽고 글을 쓰게 되신 동기가 있다면.

"목회하는데 어느 날 한 교인이 제게 말했습니다. '설교 때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신 거냐'고요. '하나님 말씀이요'라고 답했더니, '서론, 본론, 결론이 뭐냐'고 하더군요.

그런 말을 그때 처음 들어봤습니다. 설교는 그저 성경을 푸는 것이라고만 배웠습니다. 부목사 때까지는 그것이 문제가 안 됐지만, 담임목사가 되니 문제가 됐습니다. 결국 그 성도님은 그 후 1년이 못 돼 교회를 떠나셨습니다.

또 한 교인이 '설교가 들리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설교가 들려야 하나' 하고 생각하던 찰나, 옥한흠 목사님의 생전 제자훈련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설교는 들려야 한다'고 하셔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답을 찾진 못했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 고민하다, 처음에는 '묵상'의 문제인 것 같아 관련 세미나를 찾아다녔습니다. 하지만 제가 원하고 찾는 묵상이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 성도님도 결국 교회를 나갔습니다.

그래서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목회해서 뭐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10년간 공부하겠다고 마음먹고, 아내와 아들을 불러 '각자 먹고 살자'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작년까지 공부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어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목회하고 싶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공부하니, 아들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책을 어떻게 읽으셨는지요.

"1주일에 15권까지 읽어봤습니다. 10년간 5천권 이상은 읽은 것 같습니다. 주로 인문학 도서를 봤습니다. 오금동에서 목회하다, 잠실역에 교보문고가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석촌호수 바로 옆으로 교회를 옮겼습니다. 서점에 쪼그려 앉아 공부하면서 노트에 기록하는 일을 10년간 했습니다. 예전에는 서점에 하루 네 번까지 갔습니다.

1,200권쯤 읽고 나니, 옥한흠 목사님 설교가 좋은 것이 보였습니다. 그때쯤 책을 보면서도 좋은 글이 보였습니다. 책은 가리지 않고 읽었고, 토요일만큼은 신앙서적을 읽었습니다. 어려운 신학 서적보다, 주중에는 에세이와 소설, 경제경영과 인문철학 고전들을 주로 읽었습니다. 몸이 안 좋으면 자기계발서처럼 좀 쉬운 책들을 읽었습니다.

제게는 철칙이 있습니다. 쓰기 전에 읽는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기름칠을 하는 것'입니다. 다른 일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먹고 자고 TV 좀 보고, 책 읽고 글을 씁니다. 이제까지는 많이 읽었다면, 요즘에는 많이 씁니다.

처음에는 3일에 한 권 읽기도 버거웠지만, 요즘은 하루 한 권은 읽을 수 있습니다. 목사들 모임이 매달 있었는데, 실력이 좋아졌다며 '우리를 지도해 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트설교연구원이 시작됐습니다."

-비슷한 질문인데, 무슨 책부터 읽는 것이 좋을까요.

"쉬운 책입니다. 만화책이나 자기계발서, 에세이부터 읽어야 합니다. 어려운 책은 처음에 1주일씩 걸렸는데, 재미가 없었습니다. 한 권 떼는 맛으로 읽지 않습니까(웃음).

그래서 처음에 재미없는 책은 1주일에 한 권 정도만 읽고, 나머지는 쉬운 책을 읽었습니다. 1주일에 4권으로 시작했고, 점점 1주일에 7권, 10권, 15권까지 갔습니다. 22권 이상 읽은 적도 있습니다. 지금도 자기계발서를 한 권쯤은 읽습니다. 동기가 유발되기 때문입니다.

양서만 고집할 필요도 없습니다. 저는 체력이 좋으면 어려운 책을, 안 좋으면 쉬운 책을 읽었습니다. 어려우면 읽다 포기하기 쉽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무슨 책이든 정리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책을 쓰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목적이 있는 독서를 해야 합니다. 목회자라면 글을 쓰기 위한 독서입니다.설교와 전혀 관계 없는 책도 읽어야 합니다. 거기서도 자료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쓰기 위한 독서를 해야 합니다. 저도 처음 5-6년 동안은 읽기만 했습니다. 그러다 '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이상 쓰는 걸 멈출 수 없어서, 쓰게 됐습니다."

-설교가 글쓰기라는 말씀인데, 예수님은 글을 쓰지 않으셨습니다.

"설교 세미나에 가면 말만 가르칩니다. 그러면 목회자가 성장하지 못합니다. 옥한흠 목사님에게 누가 '왜 설교 준비할 때 다 글로 쓰시냐'고 물었더니, '그래야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예수님만 글을 안 쓰신 게 아니라, 공자와 석가모니 등 성인들은 모두 글을 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자들이 썼지요. 글은 이 시대에 기본입니다. 세상은 글쓰기에 열심인데, 기독교인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문제는 가장 글을 많이 써야 하는 목사들이 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강단의 위기'를 말하지만, 결국 글의 위기입니다. 교수들 글을 읽기가 힘듭니다. 특히 신학적인 글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읽기 힘든 글은 사람들이 읽지 않습니다.

글에는 주장이 있고 이를 뒷받침할 논증이 있어야 하는데, 목사님들의 글에는 주장만 있고 논증이 없습니다. 세상에는 그런 글이 없습니다. 좋은 주제가 있는데도, 글을 못 쓰니 읽혀지지 않습니다. 저도 머리 아파서 못 읽는 글이 많습니다.

아직도 설교에 있어 성경의 바른 해석을 강조합니다. 예전에는 그것만 있어도 좋아했지만, 요즘에는 환하게 잘 들려야 합니다. 아트설교연구원도 처음에는 다 반대했고 별 반응이 없었지만, 점점 달라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세상과의 격차가 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글쓰기에 열광하는데, 교회나 신학교는 관심이 없습니다. 총신이나 장신에서 글쓰기를 안 가르칩니다. 중세는 종교의 시대, 근현대가 철학의 시대였다면, 지금은 문학의 시대입니다.

글이 중요하니 말이 중요해지는 것인데, 우리는 말만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다 글로 가는데, 우리는 말에 묶여 있습니다. 콘텐츠 없는 설교가 어떻게 들리겠습니까.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시대에 콘텐츠 없는 설교를 듣겠습니까.

목회자들 글에 있어 가장 취약점이 논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논리가 필요한 구조도 아니었습니다. 요즘 많이 회자되는 '원포인트 설교'도 세상의 요구에 따라 시작됐습니다.

그런 고민에서 아트설교연구원이 출발했습니다. '세상을 제대로 읽자, 지식인과 젊은이들에게 어필하자!' 회원들 말씀을 들어보면, 다행히 젊고 배운 사람들이 좋아한다고 합니다."〈계속〉

이대웅 기자

2019 미주기독 대학박람회

IRUS
(International Reformed University & Seminary)
• ABHE 정회원
•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총회(총회장 김선규 목사)
• WKPC(세계한인예수교장로회)인준 신학교
• I-20 발행 및 각종장학제도
• ESL, 학사, 석사, 박사과정
125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4
Tel:(213)381-0081, FAX:(213)381-0010
www.irus.edu, office@irus.edu

미성대학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 ABHE 정회원, ATS 준회원
• 기독교학과(BA), 목회학석사(M.Div), 상담학석사, 선교학석사, ESL, TESOL
•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자체 발행
• 인수 후 미주 및 한국에서 사역 가능
• 목회학박사 과정 신설
• 입학상담: 조성호 박사 T(626)227-3454
미래를 책임지는 미성대학교
총장 : 류종길 박사, 이사장 : 김광수 박사
1818 S. Western Ave. #409, Los Angeles, CA 90006
Tel (323)643-0301 Fax(323)643-0302
www.aeu.edu/info@aeu.edu aeuimaster@gmail.com

인터넷 홈페이지 www.mbts.edu
for the Church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한국부
- 남침례교 6대 신학교(HLC & ATS 인가)
- 100% 한국어
- I-20 발급
- 저렴한 등록금과 장학 혜택
성경사역학철학박사
목회학석사
교육목회학박사
목회학박사
5001 North Oak Trafficeway., Kansas City, MO 64118
Tel.(816)414-3754 Email:ks@mbts.edu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해외한인장로회 총회 직영신학원
(한국 장로회 통합측 목사고시, 안수가능)
I-20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15605 Carmen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926-1023,4691 Fax. 562-926-1025
www.ptsa.edu

미주총신대학교
CHONG SHIN UNIVERSITY IN USA
개혁주의 신학의 전통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
21세기 교회와 세계 선교 사명을 이끌어 갈
사명자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2975 Wilshire Blvd.#3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487-1010 e-mail : info@chongshinusa.edu
www.chongshinusa.edu

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 TRACS 정회원 인준
• 특 전 : Sevis I-20 발행 /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 장학제도
• 성경학 학사 (B.A. in Biblical Studies)
• 목회학 석사 (Master of Divinity)
• 종교학 석사 (Master of Art in Religion)
• 목회학 박사 (Doctor of Ministry)
2660 W. 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714)527-0691(0692) Fax:(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

GATEWAY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에서
한영 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학위과정 - 목회학석사(M.DIV.) & 신학석사 (M.T.S)
상담문의 : 714-256-1311 EXT.24 / KEB@GGTS.EDU
WWW.GGBTS.EDU / KEB

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
ABHE, TRACS, ATS 정회원
미국 주류 신학교 학점 인정 및 편입학
온캠퍼스 & 온라인 프로그램
신학, 목회학, 기독교상담학 학사/석사/박사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Tel: 213) 388-1000 Fax: 213) 385-2332
www.wmu.edu admissions@wmu.edu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코헨대학교&신학대학원
With the world!
To the world!
17002 S.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el. 424-257-8176 / Fax. 424-257-8136
www.cohenuniversity.ac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Grace Mission University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대학
신학사(BA), 석사:기독교 교육학(MA CE),
선교학(MA ICS), 목회학(M.Div), 선교학 박사 (D.Miss)과정
연방정부학자금 보조, I-20, 온라인 강의,
한국어 및 영어 트랙, LA Teaching Site 운영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714)525-0088(대표), 515-5885(입학상담)
이메일: admissions@gm.edu www.gm.edu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 통일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 선교”

‘복음통일 전문 세미나’ 첫날 이학준 · 윤학렬 교수 강의 펼쳐



이학준 교수

북한 복음화의 꿈을 꾸는 ‘복음통일 전문 세미나 및 연합기도회’가 12일(화)부터 15일(금)까지 총 나흘간 패서디나(Pasadena)에 위치한 사랑의빛선교교회(윤대혁 목사)에서 시작됐다.

첫날 오후에 이학준 교수는 마태복음 5:9절을 근거로 통일과 선교의 관계에 대해서 강의했다. 이 교수는 “한국의 통일이 언제일지 모르지만 한국의 분단과 통일을 선교적인 측면과 신앙적인 관점에서 봐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의 40년간의 광야생활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과 613가지 율법조문은 근대시대 민주주의의 헌법과 법치주의 근간을 이뤘다”면서”우리 민족의 분단도 마5:9절을 근거로 신앙적인 관점에서 인류에게 평화의 산물을 공헌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산상수훈의 말씀이 자칫하면 무조건 용서하라는 말씀처럼 들릴 수 있다. 롬 12장의 근거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한다”면서”우리 자체적으로 힘을 키워 적극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힘을 기르면서 선을 베풀고 통일로 나가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선교는 나가서 전도하고 교회만 세우는 일만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 것, 우리를 용서하시고 피스메이커로 살게 하신 것”이라면서”하나님의 평화는 그 안에 정의와 공평이 존재하는 용서와 관용을 통해서 관계를 바로 세우는 것이다.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는 것이야 말로 선교”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독교가 복음전파와 구령성과를 올리는 것도 중요하나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상이 공동체적으로 통일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 선교”라고 덧붙였다.

이어진 강의에서 윤학렬 교수는 영상문화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그는 “2002년 월드컵 경기이후 자연스럽게 자리한 붉은악마의 심벌을 말하면서 문화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한번 흡수되면 절대 지워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상을 덮고 있는 문화의 힘은 어둠의 문화이다. 무릎팍도사가 유행을 타면서 아주 자연스럽게 대학가에 점집이 넘쳐나고 전국에 무속인이 140만 명이 되고, 동성애를 조장하는 공연, 영상, 영화 또한 큰 흥행을 거두고 있다”면서” 어둠의 문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시대가 됐다”고 말했다. 이날 윤 감독은 3월에 상영하는 1919 유관순 영화를 최초로 공개하며 “100년 전 3.1운동의 주역들은 그 시대 전 체인구의 5퍼센트도 안되는 기독교인이었다. 전국의 전단지를 기독교인들에게 맡긴 것도 그 시대에 크리스천을 얼마나 사람들이 신뢰했는지 잘 알수있다. 그 시대 목사님들은 너무나 존경을 받았고, 청년들에게 희망을 걸고 전념으로 목회했다”고 말했다. 그는 “17세의 유관순 열사와 함께 감방에 수용된 8명은 앞을 못 보는 사람, 기생이란 신분을 가진 사람, 만삭의 임산부의 몸으로 만세운동에 참여했고 이들은 대부분 크리스천들이었다. 성령께서 이 영화를 통해서 많은 것을 깨닫게 해주셨다. 유관순 열사 뒤에는 정동제일교회 손정도 담임목사가 있었다. 그 시대는 기독교 정신을 따로 내세울 필요도 주장하지도 않았다”면서 “기독교인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복음이 전해질 수밖에 없었던 역사적인 사실을 그리고 싶었다. 이 역사적인 일이 회복되어지고 이를 위해서 회개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 작업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10일 미주 양곡교회에서 남가주 연세 목회자회 회장 이 · 취임 감사 예배가 있었다.

연목회 회장 이취임 감사예배

남상국 목사, “자비로운 마음으로 도와달라”

지난 2월 10일 오후 5시 미주 양곡교회 본당에서 남가주 연세 목회자회 회장 이·취임 감사 예배가 있었다.

김기대 목사의 사회로 시작된 예배에서 지용덕 목사는 요한복음 8장 31-36절을 본문으로 ‘아름다운 섬김, 아름다운 축복’이란 제목으로 설교하며 참 성도가 되고, 참 목사가 되기를 권면했고, 이임하는 회장 조종건 목사(18대 회장)가 “회원들의 도움과 섬김에 감사한다”는 이임사를 전했고, 취임하는 남상국 목사(19대 회장)는 더욱 힘차게 연목회 활동을 감당할 것을 약속했다.

남 목사는 “제가 누구길래 연목회 회장이라는 중책을 주십니까? 왜 이제, 70여 년 만에 취임사 를 하게 하십니까? 모세는 40년, 저는 70년....왜? 이빨도 빠져 말도 잘 못하고 기억력도 사라지고 허리가 아파 기도도 힘들고 머리도 다 빠져서 대머리가 됐다. 주님의 뜻과 계획을 누가 알겠는가.저는 아무 것도 할 수 없으나 주님이 내안에서 일하시니 저도 그 일을 한다. 저는 부족하다. 기도해 주시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도와달라”고 말했다.

오현근 회장(연세 남가주총동문회장)과 연세대 동문인 부에나팍 박영선 시의원이 축사하고, 연목회 회원인 한기형 남가주교협 회장과 김기동 목사(세리토스충만교회)가 격려사를 전했다.

2019년 연목회 임원은 회장 남상국 목사, 수석부회장 김기대 목사, 부회장 전지용 목사, 조후연 목사, 김영숙 목사, 박종대 목사, 신명국 목사, 총무 정효남 목사, 회계 권영대 목사다.

영화 〈불의 전차〉 무료 상영

은혜한인교회는 2월 23일(토) 저녁 7시 비전센터 2층 친교실에서 영화 불의 전차(Chariots of Fire)를 무료 상영한다.

은혜한인교회(한기홍 목사)는 “새로운 LED 대형 스크린을 도입과 함께 영화관 같은 분위기에서 영화를 감상할 수 있게 되었다”고 전했다.

지난 6년간 영화 감상회를 제공해 온 은혜한인교회 기독영화 감상회는 교민 사회에서 제일 먼저 시작한 기독 영화관으로 평균 50명~200명이 고정적으로 관람을 하고 있다.

영화 감상회에서는 매점 운영을 운영하며 팝콘, 핫도그, 삶은 계란, 김밥, 각종 스낵, 커피, 음료수 등을 $1~3씩 판매할 예정이다.

문의: 714-269-0584 (김나희 사모)
주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가정폭력을 예방하는데 힘을 모을 종교지도자 25명이 탄생했다.

건강한 한인가정을 만들 종교지도자 25명 탄생

가정폭력 40시간 전문가 교육과정 진행 해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건강한 한인가정을 만들어 가는 데 힘을 모을 종교지도자 25명이 새롭게 탄생했다.

한인가정상담소(소장 카니 정조)가 지난 1월7일부터 2월11일까지 5주간 매주 월요일 ‘가정폭력 40시간 전문가 교육과정을 한인가정상담소에서 진행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30분까지 총 5일 동안 이어진 40시간의 교육과정에서는 ▶가정폭력 개요와 역사 ▶아동학대와 영향 ▶청소년 데이트 폭력 ▶피해자를 위한 안전 대책 및 평가 ▶이민법 및 기소법 등 법률적 지원 ▶피해자 상담과 리소스 등이 주된 내용으로 다뤄졌다.

한인가정상담소 카니 정 조 소장은 “가정폭력 예방을 위해서는 한인 종교지도자와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 협력을 통해 건강한 한인가정과 한인 이민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힘을 모으고 싶다”고 말했다.



인류의 소망은 오직 예수!

CMM Since 1996

의료비 대책 세우셨습니까?

CMM 기독의료상조회는 의료비 나눔을 통해 의료비 걱정을 해결합니다.

CMM 기독의료상조회는 성경적인 삶을 사는 4만여 성도들이 참여해, 짐을 서로 지라 (갈 6:2)는 성경 말씀에 따라 의료비 나눔과 중보 기도로 서로 도우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로고스선교회 산하에서 1996년에 시작된 CMM 기독의료상조회는 지난 23년 동안 문제없이 의료비를 지원해왔으며, 소수민족 단체로는 유일하게 미 보건복지부 산하 CMS(Centers for Medicare&Medicaid Services)로부터 승인받은 의료비 나눔 사역 단체입니다.

23년 역사의 CMM과 함께하는 우리의 미래는 건강합니다!

- 저렴한 회비로 다양한 의료비 지원 (질병당 $150,000)
- 미국 내 의사나 병원 제한 없이 지원
-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서 발생한 의료비 지원
- 골드플러스 회원은 건강검진비 지원 ($500/1년)
- 새 회원 소개 시 회비 크레딧을 주는 Member Referral 제도
- 장례비 보조를 위한 Life Plan (사망시 평균 회비의 100배 지원)
- CA 샌디에고 인근 라모나 기도원/쉼터 이용시 할인 혜택

새 회원을 소개하면 회비 Credit을 드립니다.

Life Plan
회원 사망시 장례비* 지원
*평균 회비의 100배

프로그램	Gold Plus	Gold	Silver	Bronze
1인	$175	$135	$80	$40
2인	$325	$260	$160	$80
3인 이상	$425	$385	$240	$120
본인부담금(1인당)	$500/Year	$500/Incident	$1,000/Incident	$5,000/Incident
지원금/질병당	$150,000	$150,000	$150,000	$150,000

기독의료상조회는 의료 보험이 아니라 크리스천들의 **의료비 나눔 사역** 입니다.
비싼 보험료, 높은 디덕터블로 꼭 필요할 때 도움 받기 힘든 일반 의료보험과 비교해 보세요.

CMM 기독의료상조회, 알면 알수록 놀랍습니다.

저렴한 회비
월40불부터 가입 가능
(자녀 1명만 내면 나머지 자녀 무료)

낮은 본인부담금
본인부담금 이상 의료비 할인 받을 경우 본인부담금 면제

다양한 의료비 지원
프로그램에 따라 의사비, 검사비, 치료비, 응급실, 처방약, 임신 및 출산, 입원/수술비 등

골드플러스 건강 검진비 지원
매년 $500 건강 검진비

의료비 지원금
질병당 $150,000

Burden Sharing
15만불 이상 의료비는 전 회원이 함께 나눠 100만불까지 지원 가능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www.cmmlogos.org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CMM Since 1996 기독의료상조회
CHRISTIAN MUTUAL MED-AID
Owned by Logos Missions, Inc.
5235 N. Elston Ave., Chicago, IL 60630
대표전화 773-777-8889 FAX 773-777-0695

CMM 캘리포니아 가입문의:
직통: 714-333-7487 Email: sungaeshin
캘리포니아 사무실 : 899 S. Disneyland Dr. Anaheim, CA 92802
인터넷가입 www.cmmlogos.org

CMS 승인 기관